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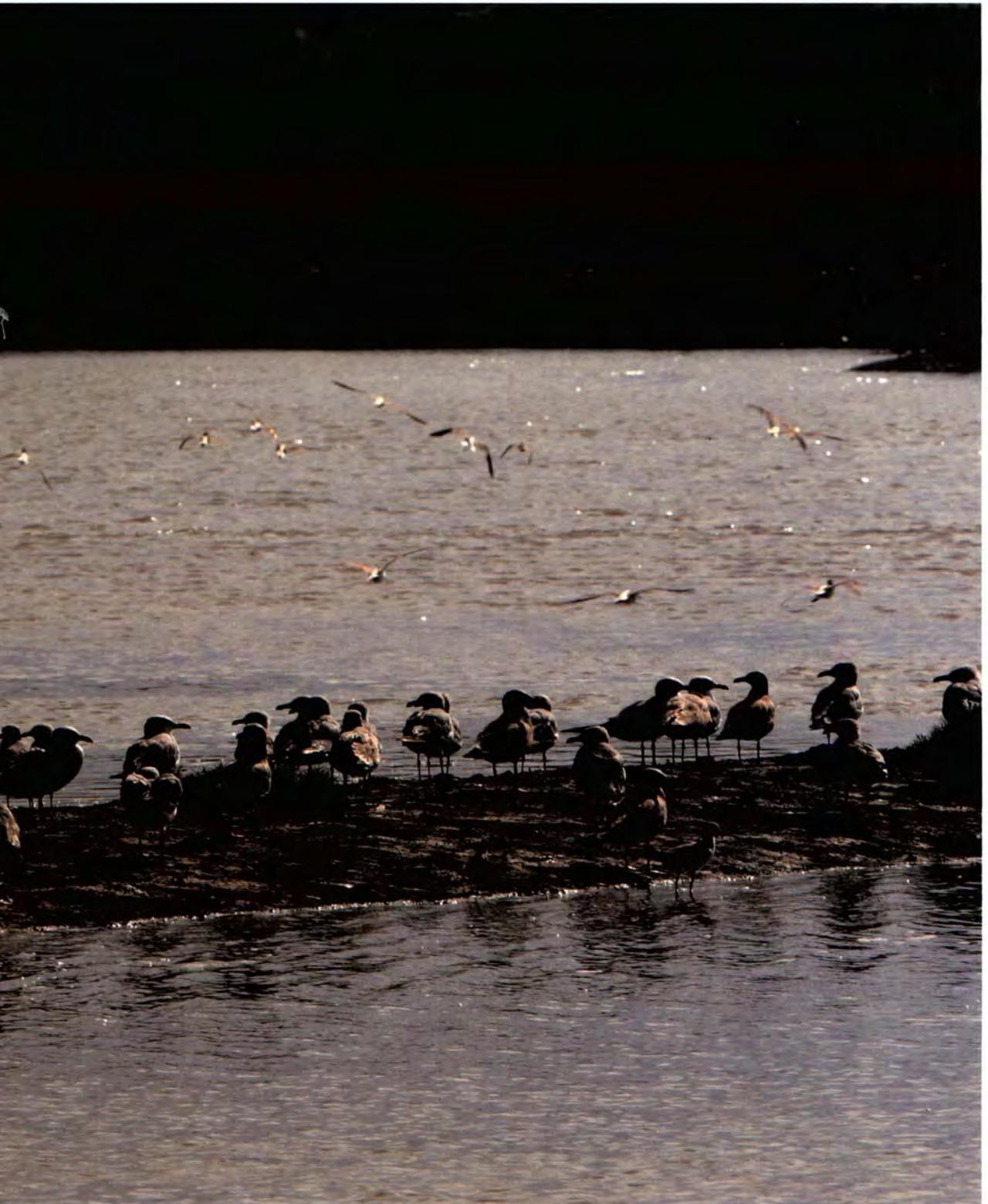
시흥문화

Siheung Culture

Vol.15 2012







발행일 2013년 1월 발행인 정상중 발행처 시흥문화원 시흥시 하중동 875-1 조은프라자 4층 T. 031-317-0827 기획편집 코인뱅크 T. 031-404-3110

※ 이 책은 시흥시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시흥문화원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산리(米山理)

정원철

밤 들녘 개구렁에 물소리 깊다
꿈에 듣는 이삭 부딪는 소리
산 같은 벼 가마 두 길이 넘었네
저녁 밥상에 둘러앉은 하얀 옷 사람들.

아랫말 선주는 연평도 조기잡이 간다네
갯벌방죽들에 모찌는 손길
두레 풍물에 논맴소리 정겹고
한 판 씨름으로 호미 씻던 백중날 추억.

동네 어귀에 가오리연 솟아오르면
바둑이 눈망울로 뛰어드는 눈발
호롱불에 소 울음 매달리고
삼경에도 불 밝은 미산리 겨울밤.

논둑에 꽃뱀 나들이 시작하면
올챙이 오골오골 소란스러운 봄
이웃마을 선주는 그물 손질에 바빠지고
미산리 사람들 눈 갈아엎기에 바쁘다네.

미산리(米山理)

경종1년(1721) 호조에서 방죽을 쌓아 갯벌을 농지로 만든 호조들의 한 마을.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의 옛 이름으로 호조추야수(戶曹秋野穗)가 시흥9경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정원철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시흥문화는 지역 향토문화의 중심이자 우리 문화의 근간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은 뱀의 해입니다. 일반적으로 뱀을 교활하고 흉물스럽게들 보지만 민속 문화 속의 뱀은 여러 이로운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성장하여 용으로 승격되기도 하고 허물을 벗는 것으로 거듭나는 재생의 의미와 신화에서는 치료의 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생활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이면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으리라는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의 역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시흥문화'가 어느새 15호 발간을 맞았습니다. 지난 일 년의 사업을 정리하며 아쉬움과 뿌듯함을 함께 느낍니다.

2012년은 본인에게도 커다란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에 취임하면서 우리시만이 아닌 경기도의 문화를 아우르며 보다 큰 영역 안에서 문화발전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사랑하게 된다는 말처럼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의 지방문화원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열린 마음으로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한류로 대변되는 우리 문화가 전 세계인에게 주목을 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문화가 우리에게 중요한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상품은 굴뚝 없는 산업이자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관광산업의 기반입니다. 특히 지방문화원이야말로 지역 향토문화의 중심이자 우리 문화의 근간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밀착된 지방문화원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시흥문화' 15호 제작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가족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3년 1월

시흥문화원장 정 상 중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정체성과 가치를 세우기를



『시흥문화』 제15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발간을 위해 애쓰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문화원이 우리 시흥시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발굴, 보존하고 연성문화제와 같은 전통문화축제 등을 개최하는 등 우리 시흥시의 문화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종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올해는 우리 시가 '시흥'이라는 이름을 가진지 100년을 맞는 해로서 아주 뜻 깊고 소중한 해입니다. 지나온 발자취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의 문화에 있어서 문화원의 역할은 정말 소중한 땀방울이자 결실이었습니다. 이렇듯 문화원이 우리 시흥의 향토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한편,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를 새롭게 가져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흥시는 지나온 100년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합니다. 우리 문화원도 앞으로의 100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자기 혁신을 꾀하며 더욱 힘써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흥문화 제15호는 시흥의 문화를 담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웃과 정담을 나누듯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적 담론이 많은 시민들과 더불어 같이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시흥시장 김 윤 식

공동체의식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문화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2013년 계사년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육구를 충족시켜줄 『시흥문화』 제15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42만 시흥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고유문화의 보존, 발굴 및 전승 등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시며, 이번 시흥문화 제15호가 발간되기까지 온갖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상종 시흥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시흥문화 소식지는 역사와 전통이 서려있는 우리 시흥시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소중한 문화적인 결실들을 담아 많은 시민들에게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 의식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문화와 희망의 메시지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에는 열정적인 창작정신과 향토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맺어진 시흥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시흥지역문화를 알리는 귀한 사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흥문화 소식지가 우리의 뿌리를 지키고 시흥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소중한 책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자부심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시흥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사년 새해에도 시흥문화원이 시흥전통지킴이로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시흥시의회의장 이 귀 훈

Contents

특별기획

문화콘텐츠를 말하다 19

개발과 재생의 틈에서 공동체를 꿈꾸는 시흥 22

송도국제도시의 문화아이콘 28

문화의 현장

전통연희단 꼭두쇠의 전통연희창작극 '황금닭의 유혹' 33

빨강등대의 비밀을 풀다 '황금깃털의 비밀' 38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탐험하다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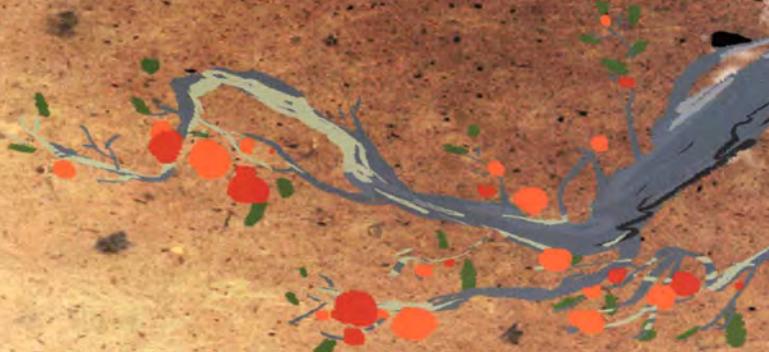
시흥시1%복지재단 '불우이웃돕기 콘서트' 46

문화공간

청소년 동아리, 수련관에서 송년파티 열다 51

정왕동 '뮤아트' 음악에 취한 사람들 발길이 닿는 곳 55





People

시흥시민헌장제정위원회 양요환 공동의장 61

시흥환경운동연합 서경옥 사무국장 64

死진가 최영숙 68

시흥 리포트

제7회 갯골축제 그 뜨거웠던 현장을 가다 73

청소년 마음 어루만지는 'KRA시흥승마힐링센터' 78

책임는 시흥 81

문화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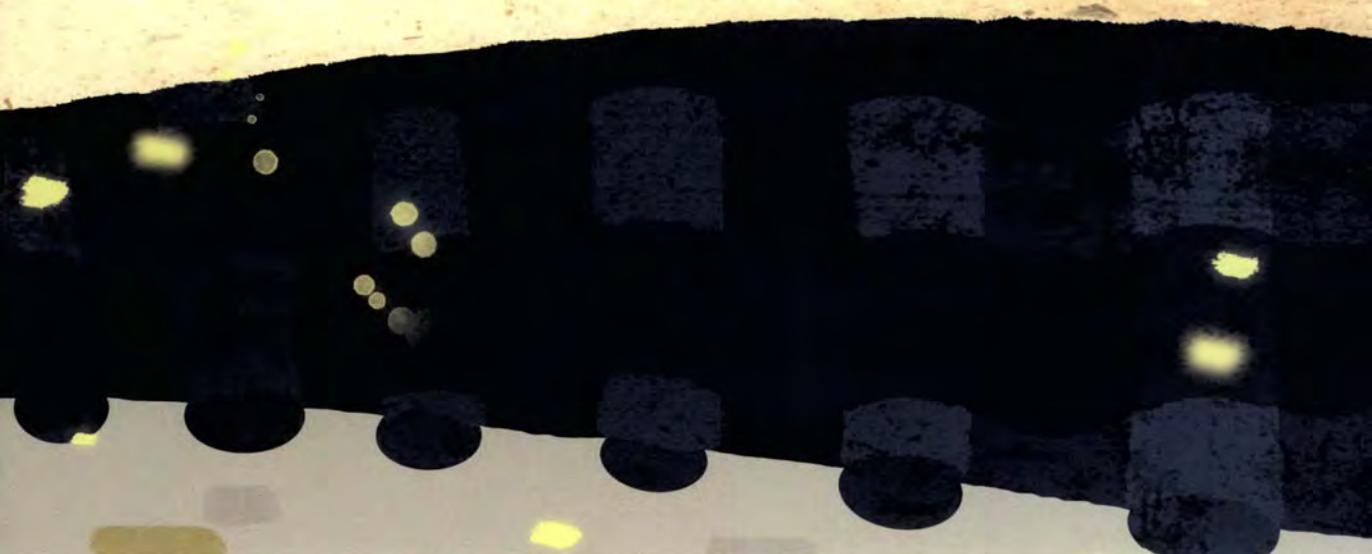
사람 사이에 서서 먹는 재미, 덤의 유혹 '삼미시장' 85

시흥 유일의 5일장 도일시장을 가다 89

문화칼럼

문화는 무슨, 라면이라도 먹은 다음이지 94

시흥의 인물 '최금렬 선생'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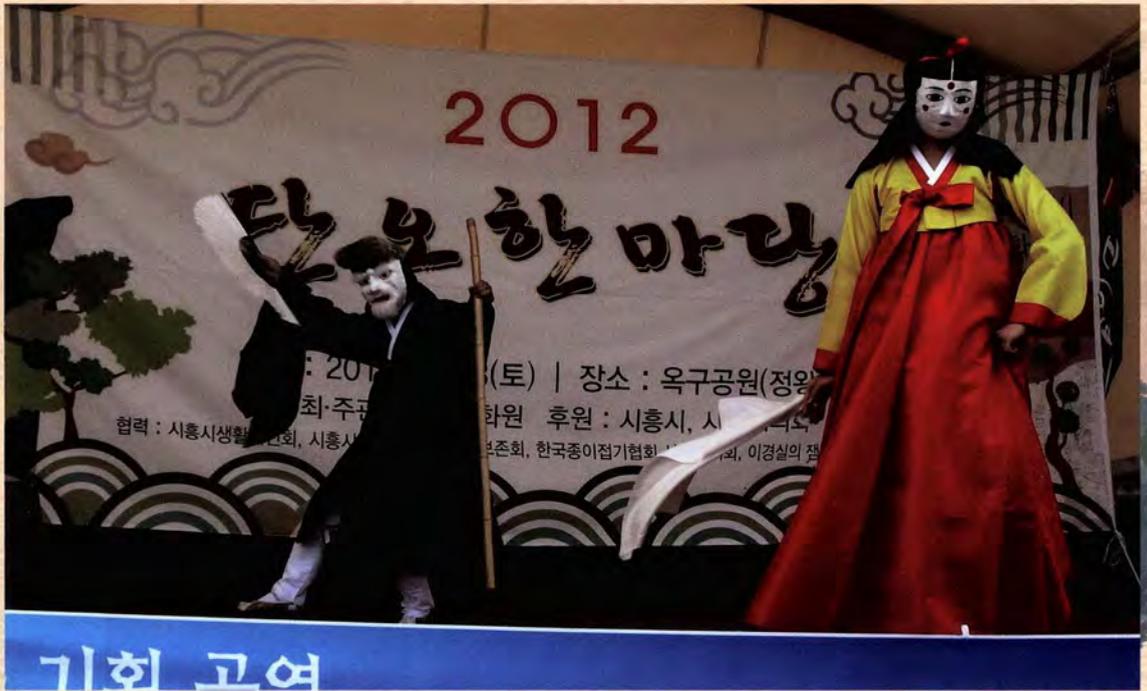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시흥문화

전통문화와 만나는 날 2012년 성년의례

'2012년 성년의례'가 5월 19일 소산서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올해 40회 성년의 날을 맞이해 열린 성년의례는 지역 청소년과 관내 군장병이 함께 해 더욱 의미 깊었다. 참여한 젊은이들은 성인으로서 자각과 긍지, 사회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졌다.





옛 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단오한마당

황해도 강령지방에서 단오날 행해지던 <강령탈춤>(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과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주최한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 체험 <아름다운 동행> 등... 6월 23일 정왕동 옥구공원에서 개최된 단오한마당은 옛 것과 새로움이 조화를 이룬 신나는 놀이한마당이었다.





시흥역사와 문화를 이어가는 전통문화축제

연성문화제

올해 21회를 맞이한 연성문화제는 시흥의 예술문화가 한 자리서 어우러지는 전통문화축제이다. 관곡지와 연꽃테마파크 일원에서 8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되었다.





시흥능곡고등학교 취타대로 구성된 강희맹 사신단 행렬과 시흥시립전통예술단 <연꽃 다시 피어나리>, <시흥향토민요 소리극> 등 많은 시민들이 시흥의 오랜 전통을 느끼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판소리 명창 안숙선 공연과 <바위섬> 김원중 공연, 그리고 전통 연희단 꼭두쇠의 창작인형극 <생금닭> 공연도 많은 호응과 갈채를 받았다.





500년을 이어온 시흥의 전통문화유산

군자봉성황제

군자봉성황제는 경순대왕을 모시는 의례로 매년 음력 10월 3일, 군자산 정상 군자성황사지(시흥시 향토유적 제14호)에서 열린다. 시흥시와 시민의 안녕, 나라의 발전을 기원하는 의례로 조선 초기 국가기록물에 명시될 만큼 전통있는 행사이다. 올해는 11월 15일 유가행렬을 시작으로 11월 16일 까지 개최되었다.





시민과 함께 세시풍속을 이어간다

동지팔죽 나누기

예로부터 동짓날이면, 조상들은 팔죽을 나누며 이웃과 정을 나누었다. 동지팔죽은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고 새로운 한해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시흥문화원은 사라져 가는 우리 풍속을 지키기 위해 정왕동, 삼미시장, 대야동평생학습센터 등 시흥 곳곳에서 팔죽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시민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을 만들었다.





시로 꽃 피운 아름다운 밤

경기도 시를 노래하다

8월 23일 저녁 7시,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시낭송 행사인 '경기도 시를 노래하다'가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의회의원과 문화원 관계자들이 참여한 문화가족 큰 마당으로, 시흥문화원 정원철 이사는 자작시 '관곡지 연꽃'을 낭송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재미있고 알찬 문화나들이
문화가족 역사문화캠프

10월 4일, 시흥문화원 문화가족들이 함께한 안성 세계민속대축전 현장. 정상종 시흥문화원장과 이사, 여러 회원이 참여하여 세계민속문화를 보고 느끼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별기획

- 문화콘텐츠를 말하다
- 개발과 재생의 틈에서 공동체를 꿈꾸는 시흥
- 송도국제도시의 문화아이콘



문화콘텐츠를 말하다

문화콘텐츠가 인문학의 영역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다. 이를 반영하듯 많은 대학에서 문화콘텐츠 학과가 개설되고 지역마다 문화콘텐츠 진흥원이 설립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 대학과 인문학 영역에서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알맹이는 없고 겉포장만 그럴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 글에서 나는 문화콘텐츠의 중요성 보다는 기초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란 무엇이고, 지향점은 어디여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글. 김성환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문화에 대한 정의는 수없이 많다. 그만큼 어떤 정의도 문화를 한마디로 규정짓지 못한다는 것이다. 레이몬드 윌리엄스(Williams, R.)의 정의에 따르면 ‘문화란 모든 삶의 양식(The whole way of life)’이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인간의 손이 닿은 것은 모두 문화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 문화’, ‘강 문화’라는 말은 없다. 이것은 자연상태의 대상만 있지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주체로 놓고 보면 ‘등산 문화’, ‘남한강 문화’ 등과 같은 표현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콘텐츠를 붙이면 등산 문화의 콘텐츠는 산이라는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논의 대상은 주로 영화, 방송, 만화, 대중음악, 공연, 컴퓨터나 모바일 게임, 인터넷이나 모바일 콘텐츠 등에 초점을 맞춘다. 문화콘텐츠 개념이 상당히 폭넓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매스 미디어



중심의 일방향적 전달이나 수동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는 것이 안타깝다. 여기에는 상업성이라는 자본주의 논리가 핵심에 있다. 이런 논의선상에서 보면 문화콘텐츠란 문화상품의 그럴싸한 포장에 불과하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몇몇 정의에서도 ‘경제적 가치 창출’을 공통분모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콘텐츠의 범위는 상업성 보다 폭넓다. 경제적 가치 창출 여부 만으로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매일아침 출근길에

타는 마을버스에서 승객과 운전기사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 받는것을 경제적 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 또한 해당 마을의 삶의 양식이고,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문화콘텐츠 연구는 사회학 영역과 창작과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인문학의 영역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존의 인문학에서는 주로 언어와 연관된 문학과 인류학, 역사 등을 다루어왔다. 이제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기존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중요한 영역이다. 인문학과 사회학의 위기로부터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천양식을 체화할 수 있는 동인으로서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점은 사실 당연한 진행과정이라 볼 수 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 콘텐츠를 소비하

는 주체 또한 사람이다.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을 논의하면서 중요하게 두어야 할 점도 바로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문화콘텐츠가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인가를 중심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지역의 문화와 지역문화콘텐츠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본다. 특히 시흥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해 보자. 시흥의 문화를 키우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시흥에서 발원된 새오름 포럼은 '시흥사람, 시흥문화, 시흥정신'이라는 가치를 두고 있다. 시흥 사람들이 시흥문화를 만들고 키우며, 나아가 시흥정신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시흥의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확대재생산 할 것



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면서도 정작 문화의 주체인 사람을 키우는 것에는 용색했다는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흥의 인재와 문화를 발굴하는 것에도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가 문화 창달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사람이 필요하고, 문화를 창작하고 전승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문화콘텐츠는 문화적 마인드를 지닌 인재 양성과 콘텐츠 창작의 분위기 조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창작자를 양성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시흥을 대표하는 극단의 공연장이 한 사람의 관객을 채우지 못해 공연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문화적 환경 조성의 부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문화를 창작하고, 창작한 문화를 즐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각종 개발이라는 발전주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하드웨어적인 요소에 치중하다보니 문화를 만들고 즐기는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저급한 문화에 현혹되어 마치 그것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것처럼 착각되기도 한다.

술 문화를 대화의 문화로, 밤 문화를 스포츠문화로 변화시키는 매개로 작용한 것은 커피와 골프다. 커피와 골프라는 매개를 통해 대화의 분위기와 음주 보다는 운동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흥을 대표하는 갯골축제,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는 그 의미가 크다. 시흥이 인접 도시보다 낙후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시흥이 갖고 있는 자



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발굴한 것이다.

고려대 정창권 교수는 그의 저서 '문화콘텐츠학 강의'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원천이 되는 콘텐츠의 개발 수준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말한다. 디지털과 네트워크는 하나의 원천이 되는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를 위해서는 원천 콘텐츠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콘텐츠가 기초가 되어야 다양한 창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흥의 역사와 시흥의 삶이 곧 시흥문화다. 시흥의 문화콘텐츠는 바로 시흥의 삶과 역사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콘텐츠 발굴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사람들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와 정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시흥의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다.

개발과 재생의 틈에서 공동체를 꿈꾸는 시흥

타자와의 관계는 도시의 '보이지 않는 손'

글. 유서원





정주 문화, 경제 활력, 녹색 안전, 주민참여,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등, 국토해양부가 매년 시상하는 '도시대상'의 평가 항목이다. 정주 문화와 경제 활력이 과거에 중시되던 항목이라면 주민참여,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등은 최근에 특히 주목받고 있다. 19세기 후반 스위스에서 태어난 '현대 건축의 거장' 르 꼬르뷔제도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로 생산(경제), 생활(주거), 위락(여가), 교통을 꼽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의 도시와 다를 바 없다. 물론 여기에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며 도시의 정체성이기도 한 시민을 추가해야 한다. 도시문화는 이러한 요소들이 뒤섞여 빚어내는 삶의 모습이다.

시흥도 최근 주민참여,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업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다. 도시농업 분야의 정책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자연부락과 아파트 단지 중심의 마을공동체가 비교적 잘 형성돼 있는 것도 시흥의 특징으로 꼽힌다. 시화공단이 위치한 정왕동에는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다문화 담론도 형성되고 있다.

시흥의 도시문화를 얘기할 때 또 하나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이 공간적 특성이다. 생활권이 분리되고 구심이 되는 중심부가 없다는 것이다. 공단과 서해, 농어업지역,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 형태를 띠는 점도 중요한 특성이다.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인천시, 광명시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신천, 연성, 정왕권의 세 개 생활권이 인접 지역으로 편입 된다는 지적도 많다.

일자리가 시민을 움직인다

시흥생명도시연구소의 '시흥사랑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도시민들의 보편적인 의식과 시흥시민의 개별 특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경기도가 조사한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조사는 각 지자체별 수백 가구를 표본 추출해 진행됐으며 최근 1~2년 내 통계는 분석에서 빠져 있다.

시흥생명도시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는 시흥 시민들의 의식을 인접 시와의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흥 시민들이 시흥에 거주하는 주요동기는 직장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접시의 경우도 직장이나 취업이 거주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안양시민의 경우 43.3%, 광명은 39.5%인데 반해 우리시의 경우 63.7%의 응답자가 주요 거주동기로 직장을 꼽았다.

이주 계획에 대한 이유(2008년 기준)에서도 우리시의 경우 자녀교육 때문에 이주를 계획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인접시에 비해 이주 계획 비율이 높았다. 시흥시민들은 교통과 문화공간,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시흥지역 내에서도 거주지에 따라 생활 만족도와 정주의식에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구 분	직장취업	가족·친인척	어려서부터 살아와서	교육	환경건강	편의시설	기타
안 양	43.3	23.3	8.8	3.3	8.3	2.1	10.8
부 천	45.0	27.9	5.4	4.5	8.7	5.4	3.2
광 명	39.5	30.3	2.8	5.0	2.8	2.5	17.3
안 산	62.3	21.2	4.8	1.2	4.0	0.6	5.8
시 흥	63.7	16.0	4.5	0.5	7.5	1.0	6.7

출처 : 경기통계DB(2011) 시흥시민의 시흥지역 거주 동기



도시디자인 마을만들기 도시농업

시흥은 지금 도시의 형태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군자 배곧신도시와 목감·장현택지개발, 은계보금자리, 시흥광명보금자리, 시화MTV까지 대형 개발사업들이 포진해 있다. 군자 배곧신도시의 경우 시범단지 분양을 이미 시작했고 조성이 완료되면 5만여 명의 인구 유입과 교육, 의료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와 보금자리 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다양한 계층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시문화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개발에 따른 도시 변화는 폭이 크고 급격하기 때문에 일시에 긍정적인 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에 반해 도시재생은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서 일정 부분 자유롭다. 최근 몇 년 사이 도시재생을 시도하는 움직임은 특히 활발하다. '2012년 도시대상' 도시재생 부문에서는 '마산원도심 창조적 도시재생-빈점포에 예술의 생기를 불어 넣다'로 응모한 경남 창원시가 수상한 바 있다. 침체된 도심의 빈점포 50개를 시에서 임차해 개별 예술인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프로젝트다.

우리는 2007년 7월 도시디자인계를 신설하고 도시디자인 아카데미와 디자인서포터즈 등을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서포터즈는 주민과 시민단체, 대학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도시디자인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 일환으로 2010년, 도시디자인아카데미에서 마을만들기 리더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소금창고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 활용 방안 등을 고민하는 “소금창고를 아냐?”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최근 2~3년 사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시는 2010년 14개 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21개, 2012년 25개 사업을 지원했다. ‘1가게 1화분 가꾸기’ ‘뱀내장터길 조성’ ‘구지정 마을이야기’ ‘순환텃밭으로 생명마을만들기’ ‘휴락통 도시농장’ 등이 모두 이렇게 탄생했다.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과

‘생명도시’ 정책을 기반으로 도시농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2013년 전국 규모의 도시농업박람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한다.

공동체 그리고 이방인과의 만남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와 맞물려 공동체 복원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참여, 협치, 소통을 통한 공동체 회복 의지를 반영한 정책 중 하나다. 2012년에는 시민의 정체성, 시민의식 등을 강조하면서 ‘시흥시민헌장제정위원회’ ‘시흥사랑 실천단’ 등이 발족되기도 했다. 도시생활에서 공동체 의식은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공동체와 집단적(문화적) 정체성 강화 움직임이 또 다른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정체성과 폭력」이라는 책에서 이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자본과 같은 자원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이해는 중요하다. 그러나 정체성 의식이 타인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많은 사람을 단호히 배제할 수도 있다는 추가적인 인식이 보완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직접적인 대면 관계와 연대를 통해 서로에 대해 매우 훌륭한 일을 하는 잘 통합된 공동체가, 그 지역으로 들어온 이주자들의 창문에는 돌을 던지는 바로 그 공동체일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이방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그 사회의 참 정체성을 드러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출현과 이에 따른 혼란과 갈등은 전 지구적 현상이다. 우리시도 인구비중이 가장 높고 공단이 위치한 정왕동에 다문화 가정이 집중돼 있다.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영식 팀장은 “현재 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1100여 명인데 이는 시흥시 전체 다문화 인구의 약 30%에 불과한 숫자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약 70%가 정왕동에 거주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봤을 때 정왕동에는 약 3000 세대 가까운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대다수는 결혼 이민으로 형성됐다.



또 임대아파트 비중이 높은 농곡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의 거주 비율이 높다. 시흥시청 행정과 김은숙 주무관은 “농곡동 임대아파트에는 새터민 164명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농곡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

피부색깔이나 언어가 다른 이방인 외에 부와 직업, 성, 종교, 학벌 등의 차이로 한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이방인이 발생하는 것이 현대도시의 모습이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가 도시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맞은 것이다.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머리 위로 하늘이 보이는가, 골목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차가 다니는 대로 옆을 지나고 있는가. 거리에 상점이 많은가, 길거리 콘서트 등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건축물은 어떤 형태인가. 도시문화를 좌우하는 요소는 이렇게 많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하나를 덧붙인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송도국제도시의 문화아이콘

글. 손보경 사진. 김성환

송도, 국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다

송도에 들어서니 국제도시임을 위시(爲始)라도 하듯 유엔가입국 국기들이 송도의 중심인 컨벤시아대로에 휘날리고 있다. GCF 사무국 유치 확정을 축하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국기 퍼레이드다. 송도 곳곳에 기하학적이고 모던한 건축물이 시야를 가득 채우며 마치 신세계에 온 듯 대단한 위용을 뽐내고 있다.

지금부터 15년 전인 1997년 거대한 깃발을 메우는 송도신도시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송도의 지금 모습을 상상



할 수 없었다. 다만 가상의 그림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국제도시로서의 대략의 모습을 그리며 그것이 과연 구현이 가능한 그림인가라는 의문을 가졌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국제도시로서의 꿈을 실현해가며 이 도시가 새로운 계획도시로서 어떤 문화적 성격을 내재할 것인지는 아무도 가늠하지 못했다. 다만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의 송도와 미래에 국제적 규모의 도시가 탄생할 것이라는 꿈을 꾸며 송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송도국제도시가 만들어 가는 도시문화

사람들은 송도국제도시의 물리적 공간이나 건축이 송도신도시를 대변하는 문화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240㎡에 달하는 녹지공간과 공원, 친환경을 바탕으로 조성된 주거공간과 테크놀러지가 접목된 인프라, 독특한 건축설계로 지어진 컨벤션센터인 송도컨벤시아, 오성급 호텔과 국제적인 규모의 채드윅국제학교와 송도글로벌대학(SGU),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등을 떠올리며, 그것이 도시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 맞는 외형을 갖추기 위해 만든 공원과 건축물도 이런 송도의 외형적 모습에 가치를 더한다. 마치 고깔을 뒤집어 놓은 듯 기하학적인 모양을 뽐내는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볼은 많은 사진작가와 모델들이 모이는 최고의 출사지로 꼽히기도 하고, 수로를 따라 수상택시를 즐기며 송도의 명소를 둘러 볼 수도 있는 센트럴 파크는 도심 속 쉼터로 송도를 환경과 조화를 이룬 도시로 만들었으며, 유럽형 쇼핑상가인 커널워크, 서해안 낙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송도 최고의 뷰 포인트 오션스코프, 인천의 과거 모습과 미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컴팩스마시티 등도 국제도시 송도로서의 위용에 불거리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 공간들이 송도 문화의 모두는 아니다.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또 다른 문화는 송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문화의 역습

의도하지 않았던 문화의 장이 열린다

송도국제도시의 건물 하나 하나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영화와 드라마, CF를 촬영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를 찾는 것도 그 중 하나



이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배경 중 송도를 무대로 한 장면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런닝맨 촬영이 센트럴파크의 아름다운 조형물을 배경으로 진행되기도 해서 송도의 기기묘묘한 건축물 위에 새로운 문화들이 창출됨을 볼 수 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리적 환경이라는 토대 위에 공연이나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들이 새롭게 덧붙여지고 있는 것이다. 건축물과 공원에 사람들의 문화적 마인드가 결합하는 융합과정 이 일어나면서 송도국제도시는 드라마, 영화, CF(광고) 촬영의 떠오르는 장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인천이라는 도시를 예술문화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래 문화도시로의 비전을 조금씩 넓혀가는 도시로

송도국제도시는 다양한 색채를 가진 도시 이길 원한다. 한 눈에 눈길을 사로잡는 기학적이고 모던한 건축물, 유비쿼터스 시스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국제적인 교육기관들과 학교, IT·BT·R&D의 허부도시이자 세계적 경제도시와 같은 낙네임을 갖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구체화되면서 문화 예술의 공간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장르가 의도치 않게 생성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려면 송도국제도시를 보라'고 말한다. 유엔기관들이 들어오며 글로벌한 도시로서 성장해가고 있으며, 세계인들이 모여드는 퓨전 레스토랑이나 유럽형 상가, 수려한 장관을 자랑하는 공원 등 송도만의 새로운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송도의 주민 뿐 아니라 인근 각지에서 이러한 송도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 이곳으로 발길을 끌고 있다. 송도는 여전히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도의 호수와 수로를 통한 Water



Front 사업으로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송도라고 하는 지리학적, 자연환경적 토대 위에 경제도시라는 목표와 사람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어가며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의 모습을 구현해가고 있다.

시흥의 문화를 상징하는 콘텐츠는 어디서

시흥의 문화콘텐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문화는 결국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 지리, 인문사회학적 환경에서 스스로 생성되어가는 것이다. 동일한 환경을 가진 도시는 이 세상에 없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화를 가진 도시도 없다. 시흥만의 독특한 환경에서 시흥만의 문화적 꽃이 피어나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한 것보다 더욱 진하고 의미 있는 공동체문화를 강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문화'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송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의도하지 않은 무언가가 덧붙여지며 새롭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시흥은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역사와 고유한 전통문화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주민들의 커뮤니티도 활발하고 오랜 역사만큼이나 공동체 의식도 단단해 마을 만들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 시흥만의 비전을 세우고 시흥의 독특함을 구현할 수 있는 꿈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곧 그려질 시흥만의 아름다운 문화를 기대해 본다.

始文化 興

문화의 현장

- 전통연희단 꼭두쇠의 전통연희창작극 '황금닭의 유혹'
- 빨강등대의 비밀을 풀다 '황금깃털의 비밀'
-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탐험하다
- 시흥시1%복지재단 '불우이웃돕기 콘서트'



전통연희단 꼭두쇠의 전통연희창작극

‘황금닭의 유혹’

글. 김원민 전통연희단 꼭두쇠 대표

TV드라마 ‘전설의 고향’은 70년 후반부터 80년대까지 큰 인기를 얻으며 한때 안방극장의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었다. 극의 말미에는 항상 어느 지방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이라는 설명과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등 교훈적인 해설을 덧붙여 마무리했다. 이렇듯 전설(傳說)은 신화(神話)와 민담(民譚)과는 다르게 생성 배경부터 특정시대, 지역, 인물의 구체성을 띠고 있다. 전설과 같은 설화(說話)들이 그렇듯이 오랜 시간 전승집단의 의식과 경험이 반영된 정신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지역의식, 정체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다.

우리 시흥에도 대략 30여 편의 다양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 중 최근 2008년 편찬한 시흥시사에 유일하게 기록된 ‘생금집’은 시흥시 향토유적 제7호로 금녕 김씨의 자손들이 12대째 살아왔던 고택으로서 조선후기 시흥지역의 전통가옥과 생활모습을 비교적 충실히 보여주는 자료이며, 거기에 전설이 더해져 보다 풍부한 이야기를 지닌 시흥의 전통문화자원이다.

‘생금집’ 소개



생금집은 금녕 김씨 자손이 12대째 세거하고 있던 곳으로, 시흥시 죽울동 597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현재 시흥시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조 말엽에 시흥시 죽울동에 살았던 김창관(金昌寬, 1845~1929, 호적에는 김창권으로 기록됨, 자는 인홍, 본관은 금녕, 아버지는 김치협, 어머니는 연안차씨)의 고택, 생금집은 안채 열두칸, 바깥채 여섯 칸의 규모에 장독대와 외양간을 갖춘 중농 수준의 살림집으로 상량문에 1931년 개축하였다는 기록을 보아 적어도 그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전설 속 인물의 후손들이 2005년 초까지 거주해 오면서 건립 당초

의 기본적인 가옥의 구조가 원형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차츰 허물어져 가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보수정비를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들보 등의 가옥 뼈대가 크게 손상되어 시흥시가 토지와 가옥을 매입하여 복원개수를 진행하였다. 현재는 원형 구조를 살려 완전히 개수된 상태이다.

시흥시사에 수록된 '생금집' 전설의 줄거리

'조선말엽 시흥시 죽울동에 사는 김창관은 집에서 십리나 떨어진 옥구도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우물에 닭 한 마리가 있어 급게 싸다가 집 골방 반닫이에 넣었다고 한다. 이때 보자기에 누런 닭털이 하나 떨어져 있어 한양의 금은방에 물어보니 금덩이이라하여 집에 돌아와 반닫이를 열어 보니 닭이 황금덩어리로 변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에 시집가서 가난하게 살던 딸이 집에 다니러 왔다가 욕심을 이기지 못해 닭을 훔쳐 달아났으나 평범한 닭으로 변하였고 크게 반성하여 집에 돌아오니 다시 금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①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 (578~579쪽 인용.)

위와 같이 '생금집 전설'은 그 내용면에서 인간의 본성과 서민들의 세계관을 엿보기에 손색이 없는 이야기이다. 특히 과거의 연장선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적 교훈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소재이다. 하지만 현재 전승되어 전해지는 생금집 전설의 서사는 매우 단순하며 스토리의 플롯 또한 함축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야기의 흥미가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전설과 같은 구비문학들이 그렇듯이 전승집단과 시대에 따라 내용들이 가감(加減)되며 다양하게 변모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생금집 전설의 원 주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문화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황금닭의 유혹'으로 새롭게 탄생한 생금집 전설

2012년 초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전문예술 창작 발표지원 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이에 꼭두쇠는 시흥에 전해지는 '생금집 전설'을 모티브로 새로운 전통창작연희극 '황금닭의 유혹'이란 작품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었다. 특히 '전통연희극'이란 생소한 장르의 접근이 주목을 받았으며 원 전설의 내용이 빈약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집안의 가택신(家宅神)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풍부하게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황금닭의 유혹'은 원 전설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가택신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주인공 김씨가 황금닭을 얻게 된 배경과 딸이 황금닭을 훔쳐가게 되는 과정 그리고 갈등의 해소 등을 집안신들과의 개연성을 통해 흥미롭게 풀어가며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당극 형태의 공연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황금닭의 유혹' 제작방향

이번 작품에서 가장 중점을 두며 접근했던 것은 '생금집'이라는 공간성이었다. 즉, 조선 후기의 건축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생금집'이라면, 가택신 신앙이 살아있는 삶의 장소이다.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집'은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작은 사회'

이자 '작은 우주'였다. 집을 지켜주는 가택신들이 곳곳에 머물고 있어서, 그런 신들에게 의지하며 가족의 화목과 행복, 건강 등을 염원했다. 대들보에 성주신, 대문간에 문신, 공간에 업왕신, 부엌에 조왕신, 장독대에 천룡신, 외양간 지키는 마부왕, 뒷간에 측신 등 가택신들을 섬기며 행동거지와 마음가짐을 추슬렀다. 이런 가택신들이 오히려 '생금집'의 옛 향기와 정신을 입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신과 함께 더불어 사는 모습이야말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집을 단순히 과시의 수단, 혹은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황금의 행운을 바라며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는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집안신들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

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본래의 전설 틀거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게 하였다.

'황금닭의 유혹' 줄거리

마을곳이 벌어지는 날, 김서방은 자신의 집에서 풍물패들과 마을 사람들을 푸지게 대접한다.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 온 꽃분이와 안산택이 시중을 들며 잔치는 더욱 흥겨워진다. 그날 저녁, 산받이는 김서방이 그렇게 떠받드는 가택신들이 궁금하여 마당으로 초대한다. 그러자, 대들보를 지키는 성주신 기둥선비, 부엌 지키는 조왕신 부엌할매, 집터 지키는 터주신 터줏대감, 대문 지키는 문신 문도령이 나와 자신들의 특기와 재주를 보여준다. 산받이는 그 재주를 칭송하며 황금닭 소문이 진짜인지를 확인한다. 그때 변소각시가





김서방이 인기척 없이 변소 문을 열었다며 해코지를 하려고 하지만, 가택신들이 모두 힘을 합쳐 변소각시를 진정시킨다.

그날 밤, 꽃분이는 변소각시의 꿈에 넘어가 황금닭을 훔치기로 결심한다. 변소각시가 미리 가르쳐 준대로 가택신들을 꼼짝 못하게 하여 도둑질에 성공한다. 밤새 달음박질로 도망치더니 새벽닭 소리에 긴장이 풀려 풀썩 주저앉는다. 산밭이한테 어디인지를 물으니 바로 자신의 집이다. 황금닭을 썩 보파리를 풀었더니 돌덩이로 변한 뒤였다. 그제야 꽃분이는 자신의 어리석은 욕심을 깨닫고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한다. 김서방은 사정을 듣더니 순순히 딸을 풀어준다. 황금닭으로 이만큼 살림이 풍족해졌으니 이제 그만 욕심을 거두자며 딸에게도 미리 챙겨둔 돈을 건네준

다. 꽃분이가 떠나는 날, 앞날에 행운을 빌어주는 놀이판이 벌어진다.

지역문화브랜드 창출의 가능성

이번 작품 발표는 경기문화재단에서 201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7개 단체가 9월 21~23일 까지 경기도 박물관 야외 광장에서 '2012 PAFE'(performing art festa)라는 제목으로 축제 형식의 쇼케이스로 진행되었다. 이번 쇼케이스는 선정된 7개 단체의 작품을 전문평가단, 일반평가단, 관객 만족도 세 분야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종합점수 결과에 따라 우수한 4개 작품에 한해 2013년도 제작비용을 각 지자체와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통연희단 꼭두쇠의 '황금닭의 유혹'은 평

가단들의 종합점수 결과 전체 2위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과 기대감이 큰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꼭두쇠는 그동안 전통 타악을 중심으로 음악 콘서트 형식의 공연을 주로 하던 집단이었다. 이러한 집단이 '마당극'이라는 다소 생소한 장르에 도전하여 이렇듯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분명코 남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무리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해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우수작품에 한해 2013년 지원을 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1:1 예산 매칭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후속 작업은 진행될 수가 없다. 즉,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산만큼 해당 지자체가 같은 비율의 예산을 책정하여 진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기문화재단 측에서도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 시흥시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의 가부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 하지만 지역문화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첫 동력이 마련된 만큼 우리 시흥시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며 2013년도 완성도 높은 작품을 통해 시흥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지역의 문화자원이 곧 경쟁력이 된다.

한국 사회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브랜드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경쟁적으로 축제, 관광 등의 문화 산업들을 육성해 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관련 사업들은 큰 성과 없이 폐기되거나 예산만 낭비되

었다는 비판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지역의 문화적 브랜드 창출의 접근에 있어 지자체들의 작위적인 억지스러움에 오히려 거부감과 궁색함이 지역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우(愚)를 범하기도 하였다. 초창기 우후죽순 격으로 만들어졌던 축제들은 2005년 말 전국 1,500여건이었던 것이 2011년 763건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개발의 핵심에는 '문화'가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은 세계 유명 도시들의 성장과정을 통해서도 잘 이해될 수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첨단화되고 편리한 도시기능만으로는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획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 산업들이 주목을 받으며 '문화'라는 키워드는 신 성장 동력의 아이콘으로 부상하였다. 문화를 정신적 또는 사회적 현상 등 비 물질적 측면만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지역문화자원들은 하드웨어 구축의 일차적 접근에서 크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시흥의 '생금집' 경우도 전통가옥의 복원에 머물러 있을 뿐 공간이 지닌 역사성과 전설 등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생금집을 모티브로 한 '황금닭의 유혹'은 지역문화브랜드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기에 손색이 없는 훌륭한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빨강등대의 비밀을 풀다

극단 기린의
'황금 깃털의 비밀'

글. 이상범

극작가, 연출가, 극단 기린 대표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야기 없는 골목은 싸늘하다. 이야기 없는 마을은 건조하다. 이야기 없는 도시는 살벌하고, 이야기 없는 공동체는 허약하다. 행복한 마을,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야기가 필요하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스스로가 주인공 되는 이야기, 자랑스럽게 대물림하는 이야기.

시흥의 상징, 빨강등대

언제부턴가 빨강등대가 시흥의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대외적인 시흥시 홍보에도 빨강등대가 맨 앞자리에 선다. 어찌된 연유일까. 상업적 의도가 반영된 것일까. 의도는 둘째 치고 빨강등대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가. 빨강등대는 시흥 시민에게 무엇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황금 깃털의 비밀

연극 '황금 깃털의 비밀'은 빨강등대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왜 '빨간 등대'가 아니라 '빨강등대'인지를 밝히는 작업이다. 세상 대부분의 등대가 하얗거나 빨간데 오이도 '빨강등대'는 뭐 다를 게 있냐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다. 빨강등대와 옥구봉, 시흥 전역을 신화적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빨강등대를 빌어 이야기 공동체, 시흥을 창조하는 작업이다. 명실상부한 시흥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게 하려는 취지다.





시흥 공동체 이야기

빨강등대 신화는 황금 깃털 갈매기를 만나 완성된다. 그리고 그 갈매기 뒤에 인간이 있다. 오이도, 아니 시흥 공동체가 있다. 하얀 등대가 어쩌다 빨간 등대가 되었는지, 빨간 등대에 왜 여전히 하얀 등대의 잔재가 남아있는지, 황금 깃털의 비밀은 무엇인지, 시흥 공동체는 안다. 시흥 공동체는 체험한다. 그리고 시흥 공동체가 이야기한다. 시흥 공동체가 신화를 공유하며 대물림한다.

오이도 갈매기는 황금 깃털 갈매기

빨강등대를 찾는 갈매기는 더 이상 일반 갈매기가 아니다. 어느 바다, 어느 하늘을 누비던 갈매기라 할지라도 오이도 빨강등대를 찾아 날아들고서야 비로소 차별성을 획득한다. 특별한 갈매기가 된다. ‘오이도 갈매기, 황금 깃털 갈매기’. 황금 깃털 갈매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빨강등대가 서 있는 오이도 뿐이다. 빨강등대를 가진 시흥뿐이다.

시흥에서 세계로

갈매기를 통해 깨달은 공동체 정신과 역사 의식을 잊지 않기 위해 시흥시민은 빨강등대에 불을 밝힌다. 그 불 꺼지지 않도록 눈 부릅뜨고 살핀다. 이제 빨강등대는 오이도, 시흥을 넘어 온 세계를 비추는 등불이다. 온 인류의 정신적 이정표가 되는 등대다. 빨강등대는 시흥의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등대 극장, 등대 박물관

이야기가 생성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책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공연이 이야기의 힘과 전파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빨강등대가 ‘빨강등대 극장’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신화를 공유하는 박물관이 되었으면 한다. 옥구봉에 ‘버들과 마리(신화의 주인공)’의 석상이 세워졌으면 한다. 오이도와 옥구공원에서는 ‘황금 깃털 축제’ 혹은 ‘빨강등대 축제’가 열렸으면 한다. 오이도가 문화예술 명소, 문화예술 관광지로 거듭났으면 한다. 극단 기린은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후속 작업을 추진하려 한다.

이야기가 상품이다

시흥은 지금 군자 배곧 신도시 홍보로 분주하다. 신도시, 새 도시는 새로워서 낯설다. 새로운 사람들끼리는 낯설어서 서먹서먹하다. 같이 살되 함께하지 못해 외롭다. 배곧 신도시는 시흥 안의 특별시가 되지는 않을까 고민해보아야 한다. 구역으로 나뉘고, 길과 담으로 경계 짓는 신도시는 시흥 공동체로부터 영영 담을 쌓아버릴 수도 있다. 지금 배곧 신도시를 위해 시흥이 홍보하고 준비해야 할 도시 자산은 이야기다. 배곧 신도시에 연한 옥구도, 오이도 이야기다. 시흥 공동체 신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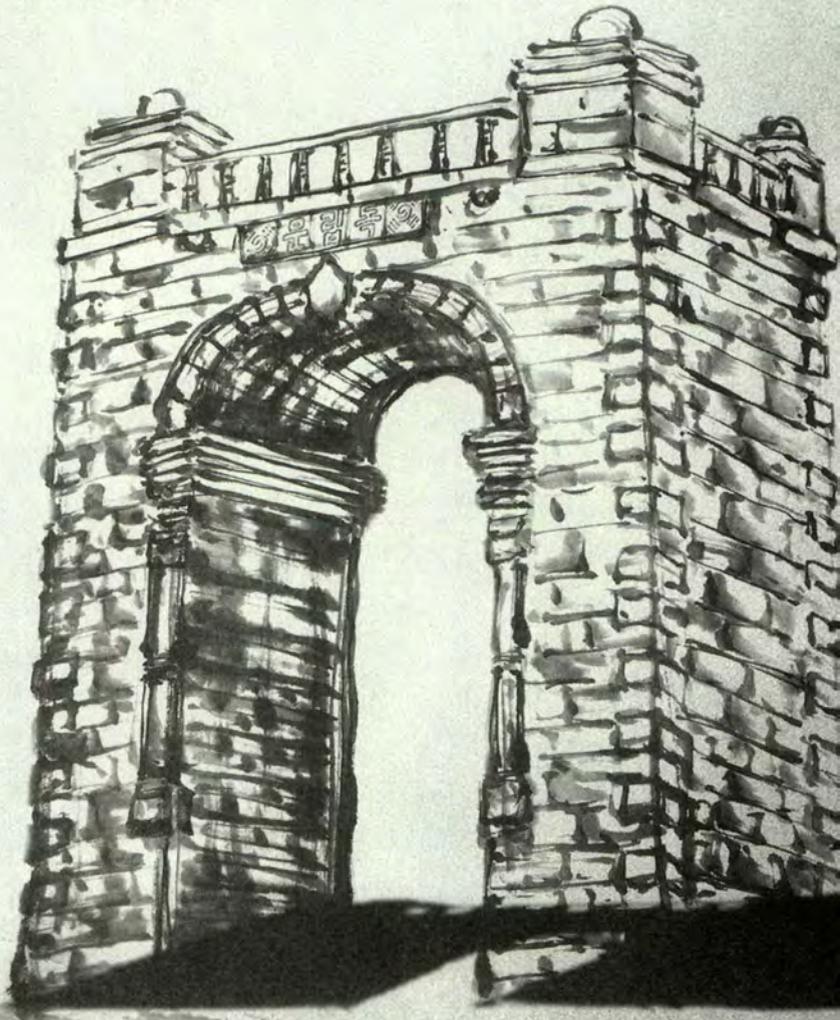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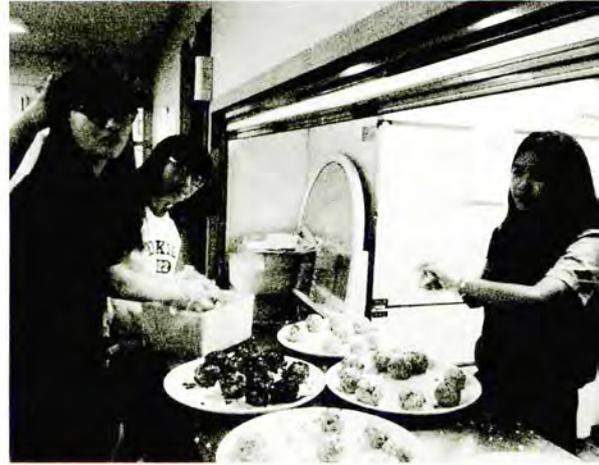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탐험하다

글 · 사진제공 (사)제정구장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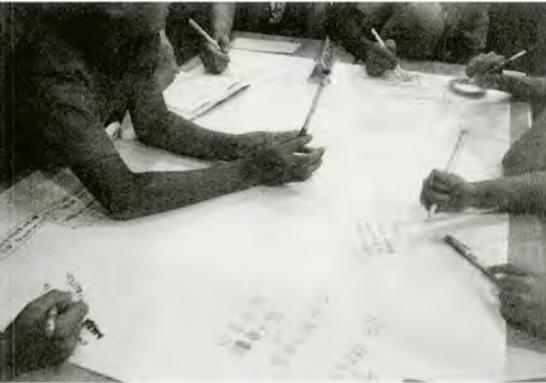
대한독립 만세

경기문화재단 경기나눔센터의 문화바우처사업 '낫달문화소풍'을 지원 받아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 2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정구
장학회가 '청소년독립운동탐험역사캠프'를 진행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민족사랑 정신과 생명평화 정신을 배우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캠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는데 독립운동과 관련해 안중근장군을 주제로 열린 강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의 과정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기라 할 수 있는 국궁체험,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안중근기념관 견학, 역사 골든벨 퀴즈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청소년독립운동탐험역사캠프

- 1기 2012. 7. 20~22
- 2기 2012. 8. 9~10
- 3기 2012. 9. 15
- 4기 2012. 10. 27
- 5기 2012. 11. 3



1기와 2기는 초·중학생 위주로 역사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오늘날의 교훈을 인식시키기 위해 애썼다. 처음 실시한 캠프이지만 참가한 청소년들은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명을 받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흥시1%복지재단

〈시흥예술인과 함께하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콘서트〉

연말 강추위 녹인 99%의 정성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2억원 모금

글. 유서원 사진. 정정호



병중 씨는 재개발로 이웃들이 모두 떠난 장현동의 허름한 집에서 홀로 살고 있다. 아내, 아이들과는 젊은 시절 헤어졌다. 정화조 청소, 굴뚝 청소 등 위험하고 고된 막노동을 하며 살아 온 병중 씨는 가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다. 하루 8장의 연탄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다. 간경화, 대장염 등을 앓고 있는 병중 씨 몸무게는 40kg에도 못 미친다. 냉방에서 생활하면서 병은 더 악화됐다.

어느 날 이런 병중 씨에게 500장의 연탄을 싣고 후원자들이 찾아온다.

10년 전, 그때 누리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17살 소녀 경민이 엄마 영이 씨는 오늘도 딸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한다. 초등학교 1학년에 막 입학했던 경민이는 하교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트럭에 다리를 치여 생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의사들은 경민이와 엄마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냉담했다.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할 경민이 아빠는 딸의 사고 이후 술에 의지해 폭력을 일삼다 가족을 떠나버렸다. 그래도 엄마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무작정 중국으로 건너가 한방치료를 시작했다. 경민이는 그 후 걸을 수는 없었지만 겨우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3년전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며 아이들 셋을 혼자 뒷바라지하고 있다.



하루 종일 집에서만 생활하는 경민이는 혼자 힘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시를 쓰고 기타를 치며 하루를 보낸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활짝 웃는 경민이, 이 해맑은 천사의 손을 잡아 줄 사람, 기다려도 되는 걸까?

크리스마스를 하루 지난 12월 26일, 오후 5시. 시흥시청 로비에는 300여 포대의 쌀이 쌓여 있었다. 햃토미, 호조햇살 등 시흥에서 나는 햃얀 쌀에는 대륜전자(주), 군자농협 여성회, 송혜원 등 기업과 개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익명’도 있었다. 잡곡, 라면, 휴지 등의 생필품도 쌓여 있었다.

바로 윗층 대회의실에서는 시흥시1%복지

재단이 마련한 ‘시흥예술인과 함께하는 연말 나눔 콘서트’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영하 15도의 강추위가 몰아친 이날, 객석엔 7살 꼬마부터 지팡이를 짚은 노인까지 꽉 차 빈자리가 없었다. 병중 씨와 경민이 같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혹은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2005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흥시에서 출연해 만든 사회복지법인 시흥시1%복지재단은 나눔에 필요한 것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다. 주위를 둘러보는 것, 당신의 시간, 밝고 따뜻한 미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뿐이면 된다고.

설립 이후 7년이 흐르는 동안 1%복지재단에는 정기 후원자 1200명이 생겼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때 그때 익명으로 후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신천서울치과를 운영하는 윤연경 씨는 지난 7년간 매월 25만원을 후원했다. 신우정밀 대표 김선훈 씨는 재단 설립 이후 가장 오랫동안 후원해 온 시민이다. 두 사람을 비롯해 장기후원자들은 이날 시흥시의회 의장상과 1%복지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한국마사회 시흥프라자, (주)위스코, 인우시스템 등의 기업은 시흥시장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의 공통점은 지난 7년간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점이다.

이날 진행된 즉석 희망모금 릴레이에는 유치원 아이부터 중고생, 여러 기업과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1%복지재단 홍보대사이며 시흥시민이기도 한 탤런트 한인수 씨는 어려운 시절 탤런트 친구가 준 쌀 한말에 얽힌

감동을 이야기 하면서 나눔을 독려했다. 김윤식 시장은 보금자리 주택이 완공되면 시흥에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호소했다.

(사)시흥 윈드 오케스트라 목관파트 연주단원들로 구성된 필하모닉 목관앙상블, 소래고등학교 출신인 가야금 연주자 김한나, 시흥에 거주하는 가수 이하정 씨 등이 연주와 노래로 콘서트에 참여했다.

1%복지재단이 밝힌 2011년 연말 모금액은 2억여 원. 2012년 연말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위를 둘러보고, 소중한 시간을 내서, 밝고 따뜻한 미소로, 손을 내밀어 주었을까?

2012년 12월 28일 현재 205,664,770원. 참여한 기업, 단체, 개인 200여 곳.

시흥시1%복지재단 T. 435-2351, 2357



문화공간

- 청소년 동아리, 수련관에서 송년파티 열다
- 정왕동 '뮤아트' 음악에 취한 사람들 발길이 닿는 곳



始^{文化}
興

청소년 동아리, 수련관에서 송년파티 열다

접근성 높고 체육시설 공연장 갖춰 세대소통 기능도

글. 박종남
사진. 정정호

실내 활동이 많아진 현대의 청소년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게임과 동영상을 즐긴다. 물론 축구나 농구로 체력을 단련하는 친구들도 있다. 공부하는 양과 시간이 예전에 비하여 늘어났고 몸을 움직이며 놀이하는 시간은 줄어 부모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공부가 이유든 실내 활동이 이유든 청소년들을 학교, 학원, 집 밖으로 불러내는 일들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만의 공간이 부족한 것도, 청소년들이 공부와 게임으로부터 벗어나 청소년이 주체인 공간으로 모여 마음의 창을 열고 소통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청소년수련관이다. 청소년 활동 그 중심 허브 역할을 하고자 하는 시흥청

소년수련관, 청소년들의 꿈의 터전이자 열정을 키워가는 무대가 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22일 토요일, 연말을 맞아 지역 안에서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청소년 동아리 송년파티'를 열었다. 청소년수련관 한울림관에 모인 시흥시 청소년들은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면서 갈고 닦은 실력과 끼를 마음껏 펼쳐내면서 화합의 장을 펼쳤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연간 활동 보고를 시작으로 우수청소년 표창이 이어졌다. 20여개의 동아리들이 모여 활동보고를 했다. 각 동아리들은 준비한 영상으로 그들만의 동아리를 소개하고 활동 이력을 타 동아리 친구들과 공유했다. 막간에는 댄스공연이 이어져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누군가는 영



성한 아마추어처럼 누군가는 프로다운 면모를 갖추어 발표를 해냈다. 연극동아리 ‘앵서스’와 농구동아리는 인기가 높았다. 특히 청소년수련관내 ‘밝은 빛’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교육봉사동아리는 색다른 활동으로 친구들의 박수를 받았다. 열기로 가득했던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을 통하여 그들만의 공간을 들여다보게 됐다.

청소년 수련관은 2007년 5월 7일 개관하였다. 지하1층과 지상 4층의 연면적 8,990㎡ 규모로 대야동 복지회관 1길에 위치해 있다. 청소년들이 흔히 ‘은단’이라고 부르는 은행택지구에 자리하여 비둘기공원과 평생학습센터를 바로 곁에 두어 접근성이 높다. 지하에 자리한 수영장과 1층의 공연공간인 한울림관을 비롯하여 댄스연습실, 음악실, 에어로빅

실, 해설 체육관, 체력단련실, 방과 후 아카데미, 영어카페, 정보화교육실, 청소년지원센터, 과학체험실, 동아리실, 미술실, 예대음실 등이 층별로 자리를 잡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 적극적인 참여의 장, 다양한 체험의 장이 되고자 운영된다.

청소년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놀이문화 공간 제공은 물론 특성 동아리를 육성하고 있다. 각 영역별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체험학습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지역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청소년 수련 활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청소년 활동사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내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동아리 연합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수련관 내 자치기구로 청소년운영위원회인 '징검다리'가 결성되어 있다. 이들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인으로서 능동적·자발적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의 권익과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내기도 한다.

청소년수련관은 이름과 달리 인근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고 체련단련실과 수영장도 성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운동을 위하여 찾는 공간인 동시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약속 장소가 되기도 한다.

만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수련관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드나

드는 사랑방 역할까지도 소화한다. “청소년수련관이 집 근처에 있어 좋아요. 운동은 물론이지만 약속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은행동 주민인 황지연(42) 씨는 아이들과 함께 드나드는 공간인 이곳을 애용한다고 했다.

300여석의 공연 시설을 갖춘 한울림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대관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며 넓은 로비는 전시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 카페처럼 꾸며진 공간도 마련되어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쉼터가 되기도 한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탓에 수련관은 청소년 이용도 조사를 하면 청소년전용공간에 비해 늘 수치가 낮다. 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이 시설을 공유하고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세대 간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



루어지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덕희 청소년수련관 관장. “즐거워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라”고 그녀는 청소년들에게 늘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련관의 역할에 대해 “청소년 시기는 문화 행사나 체육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몸놀림을 통한 자기계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해소의 장이 되는 수련관이 되었으면”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련관 외부 마당에서 ‘청소년 동아리 존’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단위의 청소년 동아리들이 모여서 분야별로 공연도 하고 놀이도 하고 스스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 싶다. 아울러 “수련관 공간에서 학생들이 생활 체육과 문화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학교와 연계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2012년

에는 인근에 있는 은계초등학교 학생들이 체육시간을 이용하여 수련관에서 수영을 배우기도 했다. 이런 활동이 늘어나 많은 청소년들이 수련관 공간을 알차게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수련관은 시간대에 상관없이 이용객이 있다. 상대적으로 성인들의 출입이 많은 시간인 오전은 조용하지만 정오만 넘어서면 시끌시끌해진다. 유치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는 초등학생부터 동아리실을 찾는 중·고생까지 드나드는 청소년들이 많아진다. 오픈된 공간이기에 가능한 북적임이다.

지역에서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편하게 찾는 공간이 된 청소년수련관. 이곳은 딱딱하고 무표정한 관공서가 아니었다. 편안하면서도 재미있고 뜻밖의 즐거움이 숨어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었다.



정왕동 '뮤아트'

저녁 어스름, 음악에 취한 사람들 발길이 닿는 곳

무대 위 악기 행렬, 음악동호인들 '활짝'

글. 유서원 사진. 김성환

시계는 멎었다. 19시 45분.

“저녁 어스름은 가난한 시인의 보람”(천상병 「주막에서」부분)이라고 했던가. '뮤아트'의 시계는 19시 45분에 멈춰있다.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시간, 그리고 1945년에 의미를 뒀다. 나라를 되찾았으니 문화예술도 해방된 것 아닌가. 정왕동에서 '뮤아트'를 운영하는 김병수(62) 씨 말이다. 긴 머리에 눌러 쓴 모자,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얼굴이다.

밝은 어둡고 멈춘 시계바늘 앞에서 마음은 한없이 느긋해지는데, 절묘하다. 무대에서 '기차는 8시에 떠나네'가 흘러나왔다. 우리만큼이나 암울한 역사를 가진 그리스의 노래다. 조국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저항의 노래든, 연인을 떠나보낸 슬픔을 노래했던 공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절절하면서도 맑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가수 김미영 씨.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





지만 앨범을 내고 활동하는 프로다. 그녀가 몇 곡의 노래를 더 하는 동안 김병수 씨는 곡에 따라 드럼을 치고 우쿨렐레를 연주했다. 김미영 씨와 밴드 활동을 같이하는 록커 반야선 씨는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하모니카를 연주하기도 했다. 긴 머리에 가죽 자켓, 허스키한 목소리까지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만으로도 록커다. “무대가 작으니 오늘은 앉전히 앉아서 노래하겠다”며 웃는 그 역시 앨범을 내고 케이블방송 등에서 활동하는 실력파다.

두 사람은 매주 송내역 광장 무료급식소 옆에서 무료공연도 한다.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단다. “뮤아트와는 가족처럼 지낸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음악을 사랑

한다는 한 가지 공통점으로 뮤아트와 인연을 맺어 이곳에서 “노래 부르며 같이 논다”고 했다. 뮤아트는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아지트였다.

아지트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잠시 뒤(시계가 멎었으니 정확한 시간은 알길 없다) 한 청년이 또 무대에 올랐다. ‘서른 즈음에’를 열창한 그는 ‘김광석 동호회’ 시흥지부 회원인 문대진 씨다. 이곳에서 동아리 모임을 자주한다는 그는 “오늘은 퇴근하는 길에 잠시 들렀다”며 김광석 노래 몇 곡을 더 불렀다.

3년 전 뮤아트를 오픈하면서 김병수 씨는 이런 문구를 내 걸었다. “음악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3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복층 구조의 손님석





과 작은 무대가 있는 공간이다. 뮤아트는 회원제로 운영된다. 회원들은 주인장 김병수, 이은경 씨 부부가 자리에 없어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놀다 가기도 한다. 진정으로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겐 언제든 무대를 열어 놓고 싶다는 게 부부의 마음이다. 일렉트릭과 클래식·전자 기타를 비롯해 건반, 바이올린, 피리, 드럼, 우쿨렐레까지 완비된 무대를 갖추고 있으니 “한때 음악 좀 했다”는 사람들 입장에선 반가울 따름이다.

“기타동호회, 색소폰동호회, 그룹사운드, 록밴드, 직장동호회 등 음악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와요. 시흥에도 음악 좋아하는 재주꾼들이 많습니다. 돈은 못 벌지만 문화도 알리고

즐거움도 주고, 저로서도 참 행복한 일이죠.”

뮤아트를 찾아오는 음악인들 노래에 맞춰 몇 시간이고 기타를 연주하는 김병수 씨는 좋아서 하는 일이라 힘든 줄 모르겠다며 악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연주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막무가내 취객 상대하기가 훨씬 더 힘들다고 호소했다. 처음 2년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했다.

기타연주가 특히 수준급이지만 웬만한 악기는 다룰 줄 아는 김병수 씨는 대학에선 디자인을 전공했다. 어릴 때부터 그림과 음악을 접하며 자랐기 때문에 생활면에서 본다면 어떤 게 전공인지 헷갈릴 정도란다.

“아버지가 해방 후 문화 사업을 하셨는데, 당신도 피리, 통소, 북 등을 잘 다루고 음악 듣기를 즐기셨죠.”

뮤아트와 실내 인테리어는 모두 김병수 씨가 직접했다. 벽면에 그림을 그리고 무대에 어울리는 전등을 달고 음악가들의 사진 등 소품을 배치했다. 주변에서 가게를 오픈할 때 인테리어를 해 달라는 요구가 종종 오기도 한다. 재미도 있고 부업도 해야 할 형편이라 마다하지 않는다. 뮤아트가 우선이니 부업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 그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립하는 건물의 인테리어를 술하게 했다. 여러 지역의 청소년문화의 집, 박물관, 전시관 등이 그의 손을 거쳐 갔다. 다양한 재능만큼이나 이력도 독특해 한때는 광고회사와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기도 했다. 서울 신사동에서는 뮤아트 1호점을 오랫동안 운영하며 많은 단골을 만들었다.

“시흥으로 내려온 건 오이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릴 때 본 오이도에 대한 기억이 참 좋았거든요. 오이도를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지로 개발해 보고 싶었는데...”



그의 ‘오이도 프로젝트’는 결국 반영되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도 오이도에 화실을 내려고 준비 중이다. 욕심을 내자면 음악과 연극 등을 공연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을 만들고 싶다.

이번엔 자칭 ‘문화를 사랑하는 청년’이 무대에 올랐다. ‘문밖에 있는 그대’를 부르고 있는데 뮤아트와 문이 또 열렸다. 머리를 긁적이며 무대에 오른 이는 한때 가수를 꿈꿨지만 지금은 특수분장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뮤아트, 참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공통점은 음악에 빠졌다는 것.



People

- 시흥시민헌장제정위원회 양요환 공동의장
- 시흥환경운동연합 서경옥 사무국장
- 死진가 최영숙

始 文化
興



시흥시민헌장제정위원회 양요환 공동의장

시흥시민이 주인이 되어
만들어 나가는 ‘시흥시민헌장’

시흥시민의 자긍심이 될 시흥시민이 함께 만드는 ‘시흥시민헌장’이 곧 제정, 공표될 예정이다. 시흥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며 청년기에 들어서는 시흥은 시(始)흥(興)이란 말처럼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 시흥시의 발전 방향과 시의 미래를 정립할 수 있는 ‘시흥시민헌장’ 제정에 뜻을 모으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 2009년 시민헌장 제정을 위한 첫 모임이 시작된 이래 3년 여 라는 오랜 기간의 산고 끝에 만나게 될 시흥시민헌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흥시민헌장제정위원회 공동의장이며 새오름포럼 상임대표인 양요환 원장(경기도노인전문병원)을 만나 들어 보았다.

글. 손보경

시민헌장 제도는 1991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행정부의 공공서비스가 주민이 바라는 질과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정책의 목표와 그에 대한 구체적 실천수단을 명문화시킨 것으로 일종의 주민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헌장 제도를 도입하여 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관’ 중심의 선언적 구호로 만들어지고 있다. 시흥의 시민헌장은 그 중심에 관이 아닌 시민이 있음이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이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민들이 참여로 만들어지

며 아래로부터의 합의를 통해 제정하는 시민헌장이다.

생명도시와 시민헌장

시흥은 시흥군 당시부터 중앙정부의 편에 따라 인위적으로 그린벨트 중심의 도시로 분리된 채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시민중심의 가치는 외면되기 일쑤이고, 도시의 정체성 또한 바르게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정주의식 또한 희박하여 주민들도 거쳐 가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시흥을 찾기도 한다. 새오름포럼은 이러한 시흥의 문제를 논하는 장으로서



출발하며 시흥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 시흥시의 시정구호가 된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은 새오름포럼이 지향하는 바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적 환경 속에서 모든 생명이 잉태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진 바 그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부상조의 공동체 도시가 새오름포럼이 꿈꾸는 생명도시이다.

새오름포럼은 '생명도시 시흥'을 만들어가기 위해 단순히 시정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명도시로서의 꾸준한 성장과 주체적인 시흥을 구현하기 위해 그리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기 위해 시민현장 제정에 뜻을 갖게 되었다. 시흥만이 갖고 있는 땅과 바다와 역사라고 하는 천혜의 자원인 우리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생명공동체의 가치를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민들 스스로 자각하고 이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시민이 만드는 시민현장,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현장

새오름포럼은 시민현장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약 1년 여 간의 토의를 거쳐 합의를 이루고, 2009년 9월에는 시민현장 제정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민현장 제정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생명도시 시민현장 대토론회 개최와 시민현장제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등 시민현장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시민 참여도 유도했다. 2010년에는 그랜드포럼을 개최하며 시민현장제정에 박차를 가하였다. 시민과 공무원, 시민단체회원 150명이 참여한 그랜드포럼은 시민이 주체가 되고 관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하게 '시민이 만드는 시민현장'에 한 발 다가서게 했다.

시민현장은 생명도시의 철학을 담아 시흥시와 시흥시민이 시흥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흥의 정신과 사회적 공동체 그리고 시흥의 물리적 공간의 특수성을 담길 원한다. 준비위원회 발족 1년 만에 시민현장제정위원회 발족을 위한 TFT가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방향과 목적을 기획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팀은 각 계의 의견을 담기 위해 시행정부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시민현장은 시민이 주도가 돼 만들며 시민들의 합의로 그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위원회가 시흥시민현장에 가장 크게 의미를 두는 점이다. 이들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을 찾아 나서고 있다. 연성문화제에서 ‘당신이 원하는 시흥의 도시 스타일(style)’이란 주제로 설문을 하고, 평생학습축제 등에도 참여해 시민현장이 시흥에 만들어짐을 알렸다.

시민현장과 생명지수

양 의장은 “관이 주도하는 선언적 구호의 현장이 아닌 우리시흥의 정신을 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모색하며 ‘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 현장에는 ‘지구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스지 신이치 주장에 공감하여 시민현장의 세부 내용을 생태(땅, soil)와 개체(마음, soul)와 공동체(사회, society)라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었다고 한다. 시민현장제정위원회도 세

개의 소위원회로 구성해 이와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실천 덕목을 구상하고 있다. ‘땅위원회’에서는 자연을 풍요롭게 가꾸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마음위원회’에서는 배움의 즐거움과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도시와 아이들이 행복한 세계 속의 문화도시, ‘사회위원회’에서는 법을 준수하여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와 상호 신뢰하는 도시,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지향한다. 그리고 그 세부 내용으로 실천 덕목을 만들었다. 내 주변에 꽃 심기 운동, 집 주변 거리를 깨끗이 하기,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교육에 힘쓰기, 자연친화적이고 문화적인 환경 만들기, 그리고 약속시간 지키기, 착한소비를 실천하자 등의 실천 덕목이다.

위원회는 시민현장 공포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현장의 초안이 나오면 시민단체, 동별, 분야별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양 의장은 ‘시민현장 공표 원년’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심신건강지수, 행복지수, 상부상조실천지수, 생명경제지수……, 우리의 삶의 질을 스스로 체크하고 점검하며 나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스스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다. 듣기만 해도 웬지 기분이 뿌듯해진다.

시흥시는 이제 수도권의 낙후된 도시가 아니다. 산업문명의 폐해로부터 생명을 구하고 그 가치를 최대한 발현 시키며 미래사회를 여는 선도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시흥시민이 만드는 시민현장을 기대하며 시흥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본다.



시흥환경운동연합 서경옥 사무국장

갯골 습지보호구역 지정 앞장 선 생태주의자

글. 박종남
사진. 김성환

환경운동가 서경옥

제법 많은 겨울비가 내렸다. 이런 날도 그녀는 여전히 수업을 진행할까 궁금증이 일었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의 서경옥 사무국장과 통화를 시도했다. 다행히 실내수업을 하는 날이란다. 소래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온 그녀를 만났다.

처음 그녀를 만났던 곳은 생태수업 현장에서였다. 2003년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막 생태수업을 듣고자 했던 초보 수강생 눈에 당차게 수업을 이끌어 가는 그녀가 인상적이었다. 크지 않은 체구와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덕에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 그녀가 1960년생 쥐띠임에 놀랐던 첫 만남이었다.

시흥살이의 즐거움

그녀는 1996년 시흥에 정착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사대문 안에서만 성장했다. 결혼을 하고 안산에서 신혼을 보냈지만 육아와 공부를 동시에 하기가 힘들어 다시 서울로 들어갔다. 남편의 직장이 시화공단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녀의 시흥 살림이 시작됐다.

이사 후 안정이 되자 전공을 살려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던 학창 시절부터 그녀는 루소의 '에밀'을 통해 자연이 가장 큰 교과서라는 지침을 믿게 됐다. 유아 단계에서 야외 수업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지녔다. 아이들과 밖으로 나갔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식물 이름에는

약했다. 식물을 많이 좋아한다면서 정작 이름 하나도 모르는 자신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자 했다. 하지만 곧 선배의 요청으로 안산에서 학원을 맡게 되어 일년의 시간이 늦어졌다.

남편의 권유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녹색가게에 자원했다. 시흥에서 YMCA랑 인연을 맺은 계기다. 학창시절에 'Y틴'에서 활동을 했고 모친이 YWCA 활동을 하는 것을 지켜본지라 쉽게 봉사를 결정했다. 봉사활동 중 2000년에 생태안내자 교육을 받았다. 환경쪽에 온전히 발을 내디딘 순간이다. 수업을 통하여 식물을 배우는 과정이 그리 신기하고도 재미났다. 아무리 작아도 식물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이 그녀를 식물의 세계로 이끌었다.

산으로 들로 다니는 것이 체질에 맞았고 더욱 자연그대로 잘 보존이 된 당시의 시흥 자연이 너무 좋았다.

“주말이면 아이들하고 나가 월곶 삼거리 부근에서 뜰채로 새우잡이하고 망둥이를 잡으면서 놀기도 하고 시화방조제 개통 전에는 차를 가지고 들어가 굴을 따 먹기도 했어요.” 자연이 살아 있던 시흥을 제대로 즐기며 보낸 시간을 추억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즐겁다. 당시만 해도 비록 개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

연이지만 그 자연을 누리고 살아서 좋았다. 친척들이 방문하면 보통천으로 낚시를 갔다. 수문 근처에서 잡아 온 참붕어로 찜을 해 먹기도 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붕어찜을 맛보는 기회였고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시흥의 자연이 고마웠다.

환경 분야 전문가로 나서다

YMCA에서 소모임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환경관련 자원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환경운동가의 길을 열게 된 시작이었다. 2002년부터는 이사를 역임하면서 활동 범위를 넓혀나갔다.

생태분야에서 그녀를 찾기 시작한 무렵이다. 소래산과 옥구공원에서 생태교실을 운영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에 부담도 느껴 고사했다. 대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환경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YMCA에서 환경에 관련된 주요 프로그램 기획부터 강사 섭외까지 일련 과정을 기획하는 실무를 보기도 했다. 또한, 때로는 현장에 가서 강의도 했다. 수업을 위해 시흥을 찾는 교수들마다 시흥의 자연환경에 반하여 감탄을 자아냈다.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그들 덕에 그녀는 시흥의 자연을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생겨났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으로 많은 행사와 일들을 치러냈다. 오이도 선사유적 발굴 사업 당시 방산대교 밑에서 다양한 문화놀이를 하면서 갯골을 알리는 기회도 가졌다.

2007년 시흥환경운동연합의 간사 자리가 비었다며 요청이 왔다. 그녀는 임시로 6개월





만 도와주고자 했는데 아직도 그 발을 빼지 못하고 있다.

시흥을 사랑한 환경운동가

그녀가 시흥에서 활동가를 자치하며 처음으로 한 일은 시화호개발 반대였다. 담수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자연을 거스르는 일인지 알기에 오이도 주민들과 시민들이 모여 오래도록 농성을 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소래산 절개반대에도 힘을 보태어 결국에는 터널로 대체 공사를 마감했다. 오이도 갯벌매립반대에도 함께해 오이도 갯벌을 지켜냈다. 2004년도에는 정왕동에 들어온다는 마사회의 실내경마장 입주 반대도 했지만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한 경험도 있다. 급식조례안을 비롯하여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반대를 위한 천막농성과 동료들의 삭발에 이은 1인 시위에 동참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시흥 갯골에 관심과 애정

이 컸다. 푸른 경기 21실천협의회에서 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시흥갯골을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하남시의 당정 습지와 선정 경쟁을 하여 시흥갯골이 선정을 받았다. 이어 2009년 신안 증도에서 열린 제2회 해양보호구역 대회에 참가하여 해양국토부 직원에게 시흥갯골을 보호습지로 지정하자고 제안을 하게 된다. TF팀을 구성하여 긴급조사를 요청하자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 왔다. 본격적으로 2010년 습지관련 모니터링을 비롯한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기반 운동도 전개됐다. 하지만 그녀는 시흥을 비우게 된다. 재발한 병으로 인한 수술로 건강도 염려가 됐고 때마침 단양 한드미마을에서 맡아 줄 일을 제안했다. 오래지 않아 그녀는 시흥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청회가 무산되고 습지보호지정은 지지부진 유아무야로 돌아갔다. 시민단체들과 모여 결속력을 호소했고 세

계습지의 날을 맞아 모인 해양국토부 직원에게 다시 제안을 했다. 시 행정 부서에서도 다행히 관심을 보였지만 진척은 없었다. 시흥갯골습지보호구역지정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여기서도 사무국장을 맡아 동분서주했다. 각종 방송과 미디어에 보도 자료를 보내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길고도 긴 마라톤 설명회 끝에 2012년 2월 17일 제12호로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행성 내만갯골인 시흥갯골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발로 뛰는 현장 전문가

시흥이 가진 무한 가치의 갯골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녀는 요즘 갯골에서 생태조사를 하고 있다. 멸종 위기 2급인 ‘붉은발말뚝개’를 처음으로 발견하는 성과를 얻었다. 퇴적층 오염도 조사에서 중금속 잔류 양이 기준치 이하

여서 이 또한 얼마나 다행이며 고마운지 모른다. ‘탈핵(脫核)운동’도 동참했다. 고리원전1호기 가동중단을 요구하며 천만 인증 샷을 비롯한 서명 운동을 펼쳤다. 안전한 먹을거리 운동과 학교 공기질 조사도 진행했다. 해양생태문화 가이드 과정도 진행했으며 5년간 지속 사업인 해양쓰레기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2명의 실무진이 직원의 전부지만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애쓴다.

바쁜 와중에도 틈이 생기면 그녀는 산으로 달려간다. 계절마다 그녀를 부르는 곳은 다양하다. 2월 복수초를 시작으로 변산바람꽃, 노루귀, 얼레지가 있고 5월이면 모데미풀과 금강초롱이 있다. 습지관련 장소인 갯벌도 그녀가 찾는 1번지다.

장항에 가면 주민들이 매립반대를 하여 보호하고 있는 갯벌이 있다.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는 그곳을 사랑하여 자주 찾는다. 어려운 활동 환경,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이 때로는 그녀를 지치게 하지만 그녀는 늘 자연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낸다.

“환경운동을 특별히 자처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다보면 절로 해야 할 일이 생겨나곤 합니다.”

환경 운동 이력에 대한 대단함을 나타내자 겸손함으로 돌아온 그녀의 답이다.

바쁨이 일상이 된 그녀. 연말이라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지만 자신의 계발을 위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그녀다. 매사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그녀의 열정이 부럽다.





死진가 최영숙

삶과 죽음간 속도는 셔터스피드

글. 김용운 사진제공. 최영숙



김수환 추기경 영결식(2009)

밤새 달려온 삼척은 봄의 따뜻함과 새벽의 서늘함이 밀고 당기는 중이었다. 궁궐 목재로 쓰였던 금강송이 울창한 영경묘(사적 제524호) 가는 길은 영험한 기운까지 돌아 묘한 기분이 들었다. 봄비를 추적추적 맞으며 울창한 숲길을 따라 가던 중 나리꽃을 만났다. 찰칵. 묘역에 도착해 촬영준비를 하던 중 렌즈를 떨어뜨렸다. 가장 아끼던 렌즈는 언덕을 굴러 계곡으로 떨어졌다. 렌즈 떨어지던 소리에 잠시 정적이 깨진 숲은 다시 깊은 잠에 빠진 듯 조용해졌다. 계곡은 엄마 품처럼 아늑하고 편했다. 그 렌즈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였다. 다른 렌즈로 촬영을 끝내고 돌아나오는데 아까 사진에 담았던 나리꽃이 갈갈이 뜯기고 밟혀 있었다. 누군가 뒤를 밟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난생처음 두려움이 몰려왔다. 준경묘까지 찍고 시흥으로 돌아오는 길은 오히려 더 큰 용기를 얻었다. '렌즈를 잃어버렸기에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혹시 묘지가 나를 지켜주기 위해...'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여사 영결식(2011)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승골 의식(2012)

사진작가 최영숙(51)은 ‘죽음’을 좇는 ‘死진가’다. 이젠 유명인사의 장례식이나 추도식의 수많은 사진기자들 속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다. ‘천개의 시선’ ‘물고기 노닐다’ 등 개인전도 몇 차례 가졌다. 최 작가가 나고 자란 시흥에선 ‘소금창고 사진가’로도 알려져 있을 정도지만 사진기를 불혹이 넘어서야 처음 잡은 늦깎이다.

“젓소를 101마리까지 키웠었어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풀 베고 우유 짜고, 애 둘 키우며 휴일도 없이 부지런히 일했죠. 15년 정도는 행복했는데 애들이 어느 정도 크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계수동 과수원집 막내 최영숙의 꿈은 농부의 아내였다. 꿈은 그녀가 23살 되던 해 이뤘다. 한 동네에서 함께 놀던 젓소농장 오빠의

아내가 된 것. 억척 새댁 최영숙은 몸을 사리지 않았다. 하루 1톤이 넘는 우유를 실어 나르기 위해 경운기까지 배웠다. 당시 시흥 축산농가 중에서 경운기를 최초로 운전한 여자였다. 천성이 부지런한 것도 있지만 자신을 배려하는 착한 남편(원태희·54) 덕에 18년을 견딜 수 있었다.

“농장을 그만두고 쉬면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처음으로 사진을 배웠어요. 이후에 일산에서 사진 수업을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만약 사진 찍는 날이 온다면 묘지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 안하고 묘지부터 찍었어요.”

2004년 그녀의 손에는 우유통 대신 사진기가 있었다. 경운기 대신 자신의 차를 몰고

전국의 유서 깊거나 유명인의 묘지를 찾아 다녔고, 신문에 크게 난 부음기사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언제 어디든 달려갔다. 무섭기는커녕 묘지와 장례식을 누비고 다닐수록 활력이 솟았고 사진기와 렌즈도 용도별로 다양하게 늘어났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법정 스님, 박완서, 리영희, 백설희, 최현 등 시대를 풍미했던 인사들의 마지막 길을 담았다. 사자(死者)와 산자, 생과 사의 경계에 포커스를 맞췄다. 딱히 정리할 수는 없지만 두 눈으로 보던 세상보다 앵글 속에선 더 많은 섭리가 읽히는 듯 했다.

최 작가는 동시에 시흥의 스러져가는 소금창고도 앵글에 담기 시작했다. 포동 옛염전에 줄지어 서 있던 45개의 소금창고는 이제 그녀의 사진 속에서만 온전히 살아있다.

“요즘은 사라져가는 마을과 시장을 담고 있어요. 물론 묘지도 열심히 찍고 있고요.”

황장업 북한민주화위원장 영결식(2010)



최영숙답다. 마치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 관문은 자신의 렌즈를 통해야만 된다는 듯 두 눈에 힘이 들어간다. 어쩌면 자신이 찍는 모든 피사체를 대변하는 지도 모른다. 묘지, 장례식, 사라진 소금창고와 사라질 마을의 공통점은 이별이다. 이별을 앞둔 말 없는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고 싶은 절절한 마음이 그녀의 목소리에, 사진에 그대로 담겨 있다.

최 작가는 사진 찍는 시인이기도 하다. 농장을 하면서 일이 힘에 부칠 때마다 책에서 위로를 받았다. 틈이 나면 서울로 올라가 한 번에 40~50만원어치 책을 사와 닦치는 대로 읽었다. 소래문학회 창립회원으로 20년째 시 창작도 열심이다.

“시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마음 속 뭔가를 표현하면서 정화되는 기분은 똑같은 거 같아요.” 근작 ‘군불’은 1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막내딸의 심정이 애뜻하다. ‘천지간, / 의지할 곳 없이 쓸쓸한 날이었네 / 가다보니 울엄마 곁이었네

산그늘이 깊었네 / 여기도 추워 / 엄마.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 상석에 기대어 앉았네 / 등 뒤로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왔네 / 울엄마 막내딸 온다고 / 아침부터 군불을 지펴놓으셨네.

한 컷으로 말하거나 짧은 시어 한 마디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순간’을 포착해 ‘여운’을 오래 남기고 싶어하는 작가적 욕망이 그녀를 추동하는 힘이다.

‘떠남’을 담는 최영숙 작가가 있어 시흥은 새로운 ‘만남’을 선물 받고 있다.



시흥 리포트

- 제7회 갯골축제 그 뜨거웠던 현장을 가다
- 청소년 마음 어루만지는 'KRA시흥승마힐링센터'
- 책임는 시흥

始 文化
興

제7회 갯골축제 그 뜨거웠던 현장을 가다

글. 박종남
사진. 정정호

‘갯골’이란 명칭은 시흥시의 친환경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다. 갯골은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드나들며 만들어낸 구불구불한 물길이다. 시흥갯골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2012년 2월에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갯골 주변으로 광활한 옛염전이 펼쳐져 있어 그 풍광이 아름답다. 갯골에서는 매년 시흥의 대표축제 ‘시흥갯골축제’가 치러진다. 갯골을 뜨겁게 달구는 8월의 태양을 온몸으로 맞서 즐기던 갯골축제가 7회를 맞은 2012년 9월로 개최 시기를 옮겼다.

축제참가자를 가장 많이 불러 모았던 대형해수 풀장을 포기하고 이름에 걸맞은 생태축제로 거듭나고자 했다. 개최 시기를 옮기는 과감한 선택에 따른 효자 프로그램의 공백을 메울 다양한 체험과 공연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기다렸다.

슬로건도 ‘갯골 愛 빠지다’로 정했다. 축제를 찾는 모든 이들이 갯골의 아름다움에 매

료되는 그런 축제이기를 바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봄부터 축제 홍보에도 열중했다.

화창한 일기 속에 서막을 연 제7회 갯골축제의 현장은 생동감으로 넘쳐났다. 한낮의 태양이 뜨겁기는 해도 갯골축제장에서는 당연하고도 고마웠다.

축제는 크게 소금존, 갈대존, 갯골존으로 나뉘어져서 운영됐다. 갯골무대인 주 무대에서는 제2회 ‘전국어쿠스틱 음악제’를 비롯한 가족동요제가 열렸으며 갈대무대와 바람무대인 보조무대에서도 연주가 어우러진 작은 공연들이 시간대별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축제장을 찾는 차량들은 인근 장곡동의 임시 주차장까지 채우고도 넘쳐났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참가자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축제장으로 들어왔다. 주말에는 서울에서 임시로 시흥갯골축제열차가 운행되기도 했다.

익숙한 바닷가 풍경하고는 전혀 다른 색다

른 갯골의 모습에 반한 관람객들은 넓은 축제장을 누비며 테마별로 체험을 하며 즐겼다.

갯골축제의 개막과 폐막식에는 스토리가 들어있는 '신어(神魚)'가 등장한다. 「해마다 초가을이 되면 오이도와 월곶 앞바다에 풍랑을 몰고 나타나 인근 어민들과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괴물물고기가 있으니 너도나도 '신어'라 부른다. 현인이 이르기를 “이 신어를 잡으면 액운이 사라지고 이 땅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리라”했다. 하여 지난 해 여름밤 신어를 잡기 위한 미끼로 물고기 풍등을 날려두었으니 시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신어를 잡아 두었다가 사흘 동안 축제를 즐기고 난 뒤 또 다시 미끼와 함께 풀어준다」는 내용이다.

이번 축제는 특별히 김미화의 사회로 환경 콘서트를 진행하여 눈길을 끌었다. 갯벌과 생태 전문가인 패널들이 김윤식 시흥시장과 함께 갯골을 보존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물때를 맞추다 보니 운행 회수가 제한적이었지만 '갯골 배 탐사여행'을 운영하여 이른 시간을 마다않고 달려 온 참가자들이 배를 타고 갯골을 돌아보는 이색 경험을 하기도 했다.

갯골은 사실 수평적인 시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보다 높은 곳에서 전체적으로 갯골의 풍경을 조망하는 아름다움이 크다. 이에 축제장에서는 '갯골 열기구 체험'이 준비되었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열기구 수직 상승이 어려운 상황을 대신하기 위하여 행글라이더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기도 했다. 예약 접수를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체험을 기다리는 줄이 길어지고 있었다. 일찍 예약이 마감된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외에도 테마별로 나눠진 체험 장에는 참가자들로 늘 북적였다.

축제장을 벗어나 시흥을 버스로 돌아보며 곳곳을 여행하는 해설사와 함께하는 '시흥시티투어', 해설사와 함께 걸으면서 주변의 생태환경과 염전의 역사를 듣고 같이 미션을 수행하고 게임을 하는 등, 놀이를 겸한 '늪내길 걷기', 생태탐방로 주변의 갯골 생물들을 살펴보면서 생태 전문가들의 해설을 들어보는 '해설이 있는 갯골여행' 등은 축제장을 찾은

참가자들에게 갯골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였기 때문에 호응이 좋았다.

생태공원 안에 상시로 운영되는 염전 체험장은 늘 그랬듯이 어린이 참가자들로 만원이었다. 수차돌리기와 소금 모으기는 염전의 특색을 살린 체험으로 소금존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다.

소금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은 축제장의 특색이 잘 드러나 방문객들의 관심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축제장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었던 갈대존은 상대적인 장소의 불리함을 극복할만한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를 불러 모았다. 참가자들의 통행을 돕고자 운행되었던 전기차량은 안전을 위하여 중단되었지만 도보를 즐기며 먼 거리를 마다않고 찾아가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신나고 즐거운 축제장 이면에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부족한 주차 공간에다 차량 행렬로 축제장 진입까지 걸리는 장시간의 기다림,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갯골 생태공원의 안전 문제, 테마별로 분산된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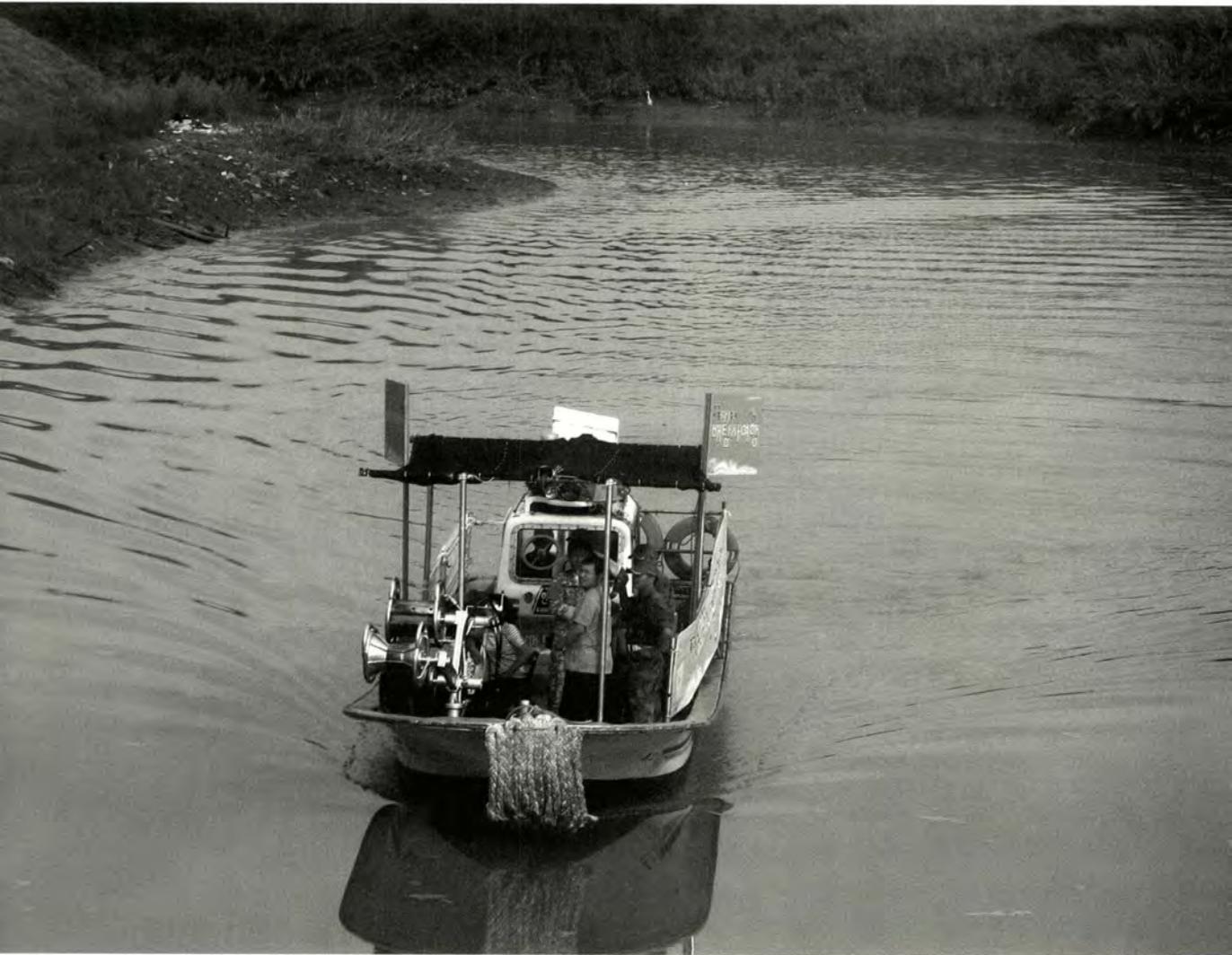
장은 초보 방문객들에게는 찾아다니기 버거운 어려움이 있었다.

먹을거리를 파는 곳이 제한적으로 한곳에 위치하다보니 넓은 축제장을 다니면서 간단한 음료조차 구입하지 못해 불편했다는 원성도 들었다.

그래도 무엇보다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힘은 따로 있었다. 물론 가장 큰 공신은 날씨였다. 비가 내려 축제장을 썰렁하게 만들었던 지난 5~6회 축제 날씨에 비하여 삼일 내내 화창함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파란 가을 하늘이었다. 다음은 누구보다 축제 성공을 바라며 자원하여 현장에서 발로 뛰 자원봉사자들. 그들이 있어 축제는 빛났다. 곳곳에서 축제참가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몸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맡은 바 역할을 해낸 자원봉사자들. 숨은 일꾼인 그들이 있어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

이용범 갯골축제 위원장은 “참가인원과 규모면에서 역대 최고의 갯골축제였다.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과 축제의 정체성을 문화관광축제 유형 중 생태환경축제로 자리매김 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먹을거리 개발과 예산 규모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본다”며 축제를 총평했다.





주차장의 부족과 음식 만족도의 낮음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생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이름에 걸맞은 축제 프로그램 개발도 시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갯골이라는 자원의 특성을 살려 관광 축제로 발전 시켜 나가야함도 빠질 수 없는 지향점이다. 유능한 민간 축제 전문가들의 조언과 지역 내 활동가들로 구성 된 축제위원회에 실권을 주어 민간조직이 책임감을 지고 축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민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만든 주민주도형의 축제가 자리를 잡는다면 앞으로의 갯골축제는 더 큰 성공을 불러오리라 믿는다.

청소년의 마음을 힐링하는 'KRA시흥승마힐링센터'

살아있는 말과의 교감 통해 행복한 변화 시작

글. 오안나
사진. 정동면

한국마사회가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흥시 은행동에 KRA(Korea Racing Authority)시흥승마힐링센터를 지난 2012년 9월 19일에 개원했다.

마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자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개원한 KRA시흥승마힐링센터는 한국마사회가 주관하고, 시흥시가 후원하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이다. 인천에 이어 이곳 시흥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원했으며, 한국마사회에서는 앞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30개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현재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집단 따돌림이나 인터넷 중독 심지어 자살이라는 무서운 선택을 하는 등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나 발달장애, 품행장애, 우울증 같은 생소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맞추어 승마힐링센터가 아동과 청

소년들의 정서장애를 치료하고자 시흥시 은행동에 센터를 개원해서, 현재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는 센터와 연계해 말을 직접 탈 수 있는 힐링승마클럽이 있다.

승마는 살아있는 말과 함께 하는 유일한 운동으로, 말의 움직임에 적응하면서 신체적 적응능력을 돕는 전신운동이자 심리적 안정과 대담성을 키우는 정신적 운동이기도 하다. 말을 이용한 치료는 아직 우리에게겐 생소하지만 이미 오래전 히포크라테스는 승마가 근육 강화는 물론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임을 입증했으며, 세계1차 대전이 끝난 후 영국에서는 부상병들의 치료를 위해 말을 사용하면서 승마치료의 토대를 닦았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승마치료가 의료보험적용까지도 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을 충분히 거친 후 문제점과 욕구를

파악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찾아오는 학생들의 문제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초기상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센터 내에는 상담 및 검사실을 비롯하여 놀이치료실, 모래놀이치료실, 미술치료실, 음악치료실, 언어치료실, 인지학습치료실, 감각통합치료실 등이 있다. 너무나 산뜻하고 따뜻한 색감으로 세련되게 꾸며져 마치 고급 레스토랑이나 격조 있는 공간에 와 있는듯해 기분까지 좋아진다. 또한 고가의 장비인 승마 시뮬레이터실도 있어 실제 말을 타기에 앞서 승마 동작을 시뮬레이터로 재현하여 승마의 최대 위험 요소인 낙마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방문하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최고 수준의 시설과 관련분야 석사급 이상의 경력 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용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약

3만원 상당),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말과 함께 행복한 변화를 꿈꾸는 '배근석' 센터장(58)은 한국 마사회 부회장으로 32년 동안이나 근무했으며 사회복지 1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그때그때 할 수 있게 해 치료시기를 놓쳐 장애가 굳어진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가 줄어들게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고 한다. 또한 시흥에 승마힐링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 지역거주자 우선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에 도움 되는 일을 할 수 있어 보람되며, 앞으로도 특수 학급 교사와 교육청과 연계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49-1번지에는 말





배근석 센터장

을 직접 탈 수 있는 힐링승마클럽이 있다. 약 1400평 면적에 '거북이' '코끼리' 등 친근한 이름으로 불리는 13마리의 말과, 시월에 태어나 '시월이'라고 불리는 관상용 미니어처 1마리가 있다. 이곳에선 특히 시월이의 인기가 최고다. 처음 승마를 하러 온 아이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말과 친해지는 역할을 하는 데는 시월이가 일등공신이다. 크기가 크지 않아서인지 시월이와 놀기를 아주 좋아한다.

몸이 불편한 아이들은 목요일을 이용하고, 그 외 정신적인 문제로 말을 타는 아이들은 나머지 시간을 이용한다. 치료승마를 하는 목요일에는 한 학생당 3명의 선생님이 함께 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말을 두려워하는 아이도 말 타기 전에 말을 만지며 말과 친해지는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매일 말을 타겠노라고 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오른쪽에 마비가 와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던 친구는 3개월이 지난 지금 계단을 쉽게 오르내리는 등 가장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힐링승마클럽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호신'

팀장(30)은 승마의 효과는 집중력을 키울 수 있고,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자세가 불안한 아이들의 자세교정과 우울해 하고 사는 게 재미없어 게임이나 하던 아이들이 눈에 띄게 밝아지는 게 보인다고 승마의 좋은 점을 나열한다. 또한 승마는 다른 치료 프로그램과 달리 치료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어 최고의 힐링 프로그램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이곳엔 4명의 선생님과 3명의 아르바이트생, 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 100여명의 아이들을 맞고 있다. 아이들의 성장통을 지켜봐주고 응원해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 곳이다. 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KRA승마힐링센터가 시흥에 있다는 건 이 지역에 큰 축복이다. 아이들이 벗어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담 한번 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 못해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학부모에게, 효과적이고 더 나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특수학급 교사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대치 이상의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들이 많아야 가정 역시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시흥승마힐링센터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힐링센터 : 시흥시 은행로 130
전화 1566-392 / 홈페이지 www.krash.or.kr
힐링승마클럽 :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49-1
전화 032) 465-3923

책 읽는 시흥

도서관 ‘공감 100배 북클럽’,
같은 책 읽으며 친밀감 쑥쑥

글. 오안나
사진. 정동면

원하는 책을 2주일 동안 6권 이내 마음껏 빌려볼 수 있는 곳,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상식이었다.

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이 오후 6시에서 밤 10시로 바뀐 이후 도서관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도서관의 기능이 책 대출만이 아닌 문화좌나 전시회 등 크고 작은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안내문은 ‘공감 100배! 도서관 북클럽 회원모집’에 관한 공지였다. 북클럽은 책읽기를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이웃과 세대 간의 교류와 소통을 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 3명이상 북클럽을 구성한 후 인근 도서관에 등록하면 공감도서를 회원 수만큼 대여해 주는 아주 좋은 독서 프로그램이다. 1차 선정된 공감도서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각 3권씩 총 9권이다. 책을 읽고 난 후 각자의 느낌을 나누어 보고 ‘공감나누기’라는



기록을 도서관에 내야하는 것이 단 하나의 조건이다.

현재 나는 아들과 함께 부킹(Book-ing)클럽이라는 이름으로 6명에서 활동하고 있다. 처음 신청한 책은 완득이 작가로 알려진 김려령 씨의 ‘가시고백’이다. 대여기간은 한 달 이

내라서 큰 부담도 없다. 쉽게 책장이 넘어가는 청소년기의 성장소설이다 보니 아들도 쉽게 읽는 눈치다. 제대로 눈 맞춤 시간조차 없는 대학생 아들과 같은 책을 동시에 읽으며 책속 주인공 이야기부터 시작해 공감되는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뿌듯하고 흐뭇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좋은 문장이나 공감되는 부분에는 알록달록 접착식 메모지를 붙이라고 했더니 엄마랑 아들이 같은 페이지 같은 곳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순간 작은 전율이 일기도 했다.

딸과 함께 같은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영희(46·능곡동) 씨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300%이상 좋아요”라며 자칭 북클럽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모녀간의 관계가 좋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녀왔습니다’란 인사말만 던지고 제 할 일만 하는 딸과 식사 챙기는 것 외엔 그다지 대화꺼리가 없었던 엄마 사이에 “엄마는 책 어디까지 읽었어?”로 시작되는 대화는 조잘조잘 이야기꽃으로 이어져 그 어느 때보다 엄마와 딸 사이의 돈독함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이젠 아빠의 시새움까지 받고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환하게 웃는다.



“처음 북클럽 제안을 받고서는 공감나누기가 무척이나 부담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져요. 그래서 책을 더 빨리 읽게 되요”라며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같은 책을 읽었으나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각자의 성격까지도 엿볼 수 있는 공감나누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보너스이다.

현재 관내 도서관내에는 28개의 북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책과 함께 노니는 집’ ‘오리엔탈’ ‘책이랑 소풍가요’ ‘다독다독’ 등 이름마저 예쁜 북클럽이 시흥 각지에서 근처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며 책으로 인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다.

정왕동 서촌초등학교 정은선 선생님도 월 곳도서관을 이용하던 중에 북클럽을 알게 됐다. 현재 4학년 2반 28명의 아이들이 5개 클럽으로 활동 중이다.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팀을 짜고 클럽명을 짓고 아침 독서시간 10분과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국어시간 등을 이용하여 재밌고도 효율적인 독서를 하고 있다. ‘용감한 아이들 넷’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4명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 ‘독서나무’ ‘용감한 천재들’ ‘책 읽는 사람들’ ‘천재스타일’로 5~6명의 친구들이 같은 책을 읽고 조별로 주제를 정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책 한 권당 10문제씩 출제하여 ‘독서 골든벨’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생각 외로 아이들이 적극적이며 진지하게 임한다고 한다. 시상 또한 칭찬도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쿠폰을 발행하기도 하는데 그 쿠폰의 내용이 참 재밌다. 짝꿍하루 바꾸기, 간식 허용권,



앞문 통행권, 급식 일변... 앞문 통행권을 받은 친구가 마치 선생님인양 어깨에 힘을 주고 앞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상을 하니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한 분의 선생님이로 인해 28명의 아이들이 책속에 빠져 '툴툴 마녀가 인간세계로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진지하게 토론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다. 한 명의 선생님과 좋은 책 한 권이 지닌 힘이 무척이나 크게 느껴진다.

음악 하는 사람이 음악으로 교감을 나누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으로 교감을 나누듯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한 책으로 일

마든지 교감을 함께 나누며 그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북클럽을 하며 새삼스레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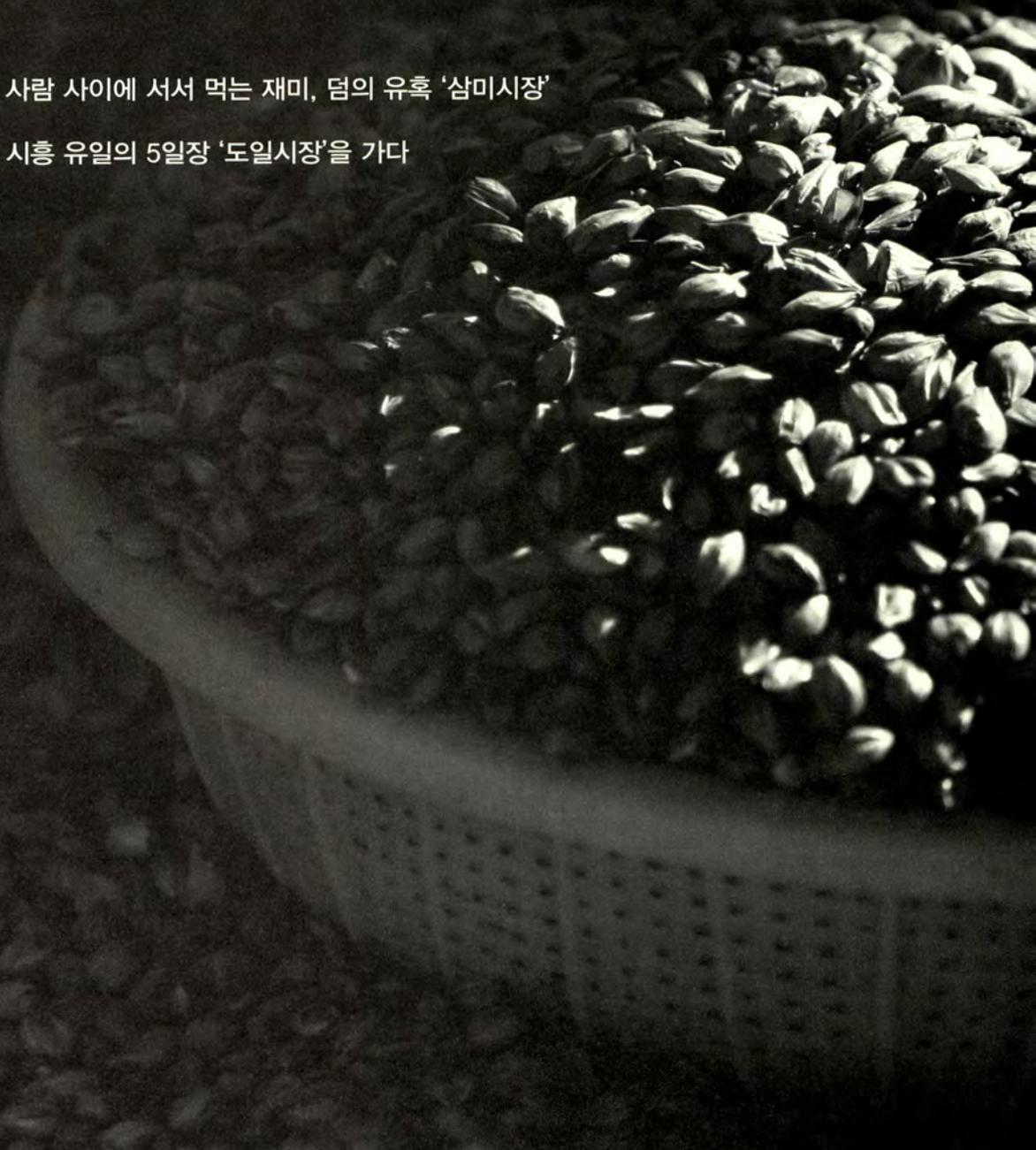
지금 도서관에는 북클럽 리더들이 추천한 책과 여러 전문가들의 추천을 종합하여 북클럽 도서 2차분이 선정되었다. 각 15권씩 45권의 책이 시민들의 손에 돌려져 읽히길 기다리고 있다. 누구나 북클럽으로 신청만 하면 좋은 책을 쉽게 볼 수 있다는 큰 혜택을 잊지 말고 누리보자. 이것을 기회로 책과 함께 하는 행복한 시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본다.

중앙도서관 운영기획팀 310-5202

始^{文化} 興

문화기행

- 사람 사이에 서서 먹는 재미, 덤의 유혹 '삼미시장'
- 시흥 유일의 5일장 '도일시장'을 가다



사람 사이에 서서 먹는 재미, 덤의 유혹 30년 전통에 미소, 미감, 미식을 더하다

삼미시장

글. 박종남
사진. 김성환

시흥에는 유명한 장터가 많았다. 수원과 안양 부천의 삼거리 딱 그 중심에 위치해있던 '삼거리 시장'과 우시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뱀내장' 그리고 아직도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도일장'이 그랬다. 오일장인 전통 장과 달리 연중 내내 열리는 상설시장이 시흥에 자리를 잡은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신천택지지구 개발에 즈음한 1987년, 시흥 신천동에 상설재래시장으로 유일하게 터를 잡고 있는 곳이 있다. 불경기 속에서도 덤을 얹어주는 인정이 있어 사람들의 온정이 절로 느껴지는 이곳은?

의류, 신발, 과일, 건어물, 생선, 두부, 식재료, 화장품, 생활용품, 빵, 족발, 정육점, 반찬, 분식 등의 점포가 어깨를 나란히 잇대어 선 삼미시장. 30년 가까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인들의 터전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장보기를 가능하게 해 주는 곳이다. 신용을 기본으로 하는 상인들의 마음 씀씀이가 있어 그들의 인정에 끌려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몰리는 삼미시장은 언제나 활기가 넘쳐나고 생동감이 묻어난다. 주거지 밀집 지역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덕에 항상 고정적으로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많고 버스 환승 등의 이유로 유동 인구 또한 많다. 삼미시장은 늘 분주하다. 보통의 사람들이 달콤한 잠에 빠져 있을 새벽 시간부터 날이 바뀌는 늦은 밤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삼미시장의 명칭 유래는 단순하다. 시장의 모태가 된 상가 건물인 삼미종합상가의 건축주가 이름을 삼미로 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다. 그 이름으로 25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민들의 발길을 꾸준히 불러 모으는 상설시장으로 온전히 자리를 잡았다.

삼미시장은 남북 방향의 세로골목과 수인산업도로와 나란히 방향을 같이 하는 가로골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세로골목은 세월을 간직한 흔적이 묻어나는 점포들이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2004년 아케이드 공사와 간판정비 사업을 한 가로골목은 현재 대부분이 식당이나 식료품 가게로 운영되고 있다. 통로에는 포장마차형의 음식점이 들어 와 있어 소래산을 동반하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친구, 지인들이 만나 정을 쌓아가는 장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세로골목에는 지붕조차 없어 비나 눈이 내리면 불편함이 크다.





삼미시장은 지금 변신 중이다

시장의 전통을 업고 사람 사이의 정겨운 만남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가고자 패러다임을 재구성 중이다. 새로운 도약에는 홍보도 한 몫 한다.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자 2011년 '1시장 1대학'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삼미시장을 대표하는 삼미(三味)라는 시장의 브랜드화 작업을 마쳤다. 삼미는 미소(味笑), 미감(味感), 미식(味食)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드리는 따뜻한 미소와 시장의 아름다운 풍경과 저렴하지만 맛은 뛰어난 좋은 음식으로 손님에 대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고객에게 3배의 만족과 3배의 행복을 드리기 위하여 삼미시장의 상인들이 혁신을 꾀하고 있다”는 시장변영회 박춘기 회장.

변화를 주도하는 삼미시장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친절과 웃음으

로 그리고 덤이 오가는 인정으로 고객을 모은다. 게다가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30분 기본은 무료이고 구입한 상점에서 주는 주차권도 있다.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상품 구입 가능한 곳이 시장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동의할 하는 바다.

근저에는 여행지에서의 시장 방문이 필수 코스가 되기도 한다. 골목까지 침투한 기업형 슈퍼마켓과 근거리에는 대형마트들이 늘어가지만 전통·상설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완전히 돌려놓지는 못한다. 대형마트의 편리함과 안락함이 주는 유혹보다 더 강렬한 이끌림이 시장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삶이 고달프거나 근심이 생기면 시장으로 가라는 말과 통한다. 그곳에 가면 시름을 털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올 수 있다. 구경거리가 많아 소소한 즐거움을 얻고 상인들의 호객 목청에 심심할 겨를이 없다.



삼미시장에 가면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

생선을 사러 꼭 삼미시장을 다닌다는 김문정(70) 씨는 “삼미시장이 생기면서 장사를 시작한 터줏대감인 주인의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고, 일단 물건을 믿고 살 수 있어 이사를 가서 멀어져도 자꾸 오게 되요”라며 시장을 찾은 이유를 들었다. 시장에서 제일 손님이 많이 몰려드는 곳은 즉석 음식 코너다. 손님들 발걸음이 종종거리고 상인들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겨울철이 되면 따끈한 어묵 국물이 기다리는 간이매점에는 인산인해다. 한입 베물어 먹고 싶은 충동이 이는 즉석 모두부와 기름향이 도는 군만두는 자꾸만 시선을 붙잡는다. 즉석 빵가게의 맘 좋은 주인아저씨는 단돈 이천 원 어치만 사도 덤을 주는 선심을 남발한다. 손님을 기다리며 일일이 야채를 다듬고 손질하여 정갈하게 담아둔 난전의 야채들도 지갑을 열게 만든다. 가게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팔려나가기를 기다리는 야채와 과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시장의 풍경은 늘 그대로인 듯 하지만 변화무쌍하다. 살아 숨 쉬는 삶의 현장임을 절로 느끼게 되는 진풍경. 에너지가 느껴지는 역동의 현장이 바로 시장이다.

시흥의 역사와 함께 한 시흥 유일의 5일장 도일시장을 가다

글. 손보경
사진. 김성환

삶의 활력을 잃었을 때,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우리는 일부러 시장을 찾곤 한다

그곳엔 사람들의 분주함이 있고, 값을 덜 주기 위한 실랑이가 있으며, 값을 더 받기 위한 흥정이 있고, 덤이라도 얻기 위한 애교가 있다. 세련되게 꾸며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삶의 정취를 느끼고자 전통시장을 찾는다. 시흥엔 삼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이 있어 삶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이들의 발길을 끌고 있으며, 시골에서나 보암직한 5일장이 열리는 '도일시장'이 있어 그 정겨움을 더하고 있다. 2·7장, 5·10장, 열리는 날에 따라 불리어지는 이름도 각각으로, 도일시장은 3일, 8일에 열려 3·8장이라 불린다.

때 이른 한파와 도로를 마비시켰던 첫눈이

내린 뒤여서 장이 열렸을지 걱정하며 도일장을 찾았다. 장터는 모름지기 봄이 더 볼만 할 텐데 추운 한 겨울에 도일장을 찾아가며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마음이 서성이고 있다. 하지만 잠시의 망설임은 그저 기우일 뿐, 눈 내린 빙판길을 헤치고 찾아간 도일장은 입구에서부터 진기한 볼거리로 방문객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삼단으로 나누어 진 무쇠 솥 안에서 땅콩이 이리 뒹굴어지고 저리 뒹굴어지며 볶아지고 있다. 신기해하며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니 “바로 볶아서 정말 고소해요”라며 땅콩 홍보에 열심이다. 바닷가 어느 덕장에서인가 1차로 말려 건조된 볶어와 장대와 말린 오징어는 겨울 햇빛을 받으며 제 몸매를 자랑하고 있다. 매서운 겨울 한파에 황금빛으로 말려진 상품들을 줄지어 넣어놓고 주인장은 커



다란 종이 박스 속에 들어가 있다. 아마도 안에는 따뜻한 난로가 있겠지 싶다. 이 추운 날 사람에게겐 보온장비가 물고기에겐 강렬한 햇빛이 더 좋을 듯하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말처럼 이곳 장터는 그 말을 실감하게 한다. 눈이 온 뒤여서인지 종류별로 크기별로 마련된 눈 치우개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방한복도 솜의 두께별로 다양하다.

짬술에서는 만두와 찰빵이 따끈하게 찌지고 있고, 추운 겨울 우리의 허기와 속을 풀어 줄 해장국집의 커다란 곰술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퍼 놓은 말전에는 서리태와 찹쌀, 현미 등 곡식이 가득이다. 손님

이 없는 틈을 타 친구 할머니가 싸 온 한 끼니의 식사로 허기를 면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꽃다운 나이 16세에 거모동으로 시집와 60년을 이곳에서 살며 독일의 아낙이 된 배홍숙 씨(78세)는 느지막이 장에 나오며 친구의 점심을 싸와 점심 먹는 친구의 말동무까지 자청하고 있다. 할머니가 장에 들고 온 물건은 고추 말려 찢 것 한 봉투, 강낭콩 2되, 마늘 깠 것 조금이 전부이다. 장이 서니 농사지은 물건 내다 팔 심사(心思)보다는 친구 만나러 마실 나오듯 장에 나오신 듯도 하다. 예전 장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다. 물건 사러 나오는 곳, 마을 구경하러 마실 가는 곳, 친구 만나러 나오는 곳 그리고 마을 소식 들으러 가는 곳 장터 말이다.



아무리 매서운 추위라도 주말을 맞이해 열린 장터에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다니다 보니 서서히 발이 시려온다. 때마침 들른 과일가게 연탄 난로에서는 물주전자가 달그락거리며 온기를 더하고 있다. 반가운 난로에 언 발을 녹이려 서성이며 주인장에게 도일장에 대해 물으니 이 분(윤종택·50세) 도일장 터줏대감이다. “본장이 진짜여~, 거기를 가봐요”라며 단숨에 도일장 설명을 시작한다. 이곳 도일은 인근 안산과 바로 인접해 있어 행정구역은 나누어져 있지만 두 지역 사람들이 함께 혼재해 살고 있는 곳이란다. 도일시장도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이 생기며 장이 활기를 띠고 커지게 되었고, 산업발달에 큰 영향을 받아 공단이 활기가 돌면 장도 크게 융성하고 경제가 침체

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다. 예전엔 인천에서 수원을 오가는 협궤열차가 지나가는 길목이고 군자역이 있던 곳이어서 교통이 편리해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다. 그래서 장이 서는 날이면 볼 만한 풍경이 많았단다. 씨름대회가 열리기도 하고, 풍물패의 신명나는 놀이도 있어 사람 사는 재미를 실컷 즐길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거모지역은 그린벨트가 많은 배후도시여서 더 이상 장이 커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래 아쉽지. 여기가 안산 초지장 보다 먼저 생긴 곳인데 말이야. 자 됐지요.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해줬지.” 시원시원한 성격에 도일장에 대한 깔끔한 설명으로 난로를 더 께차고 싶었지만 아쉬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1953년부터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일시장은 이렇게 화려했던 옛 명성을 간직한 채 이제는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형마트가 생기며 전통시장이 위축되어 가고 있지만 그나마 시흥엔 도일장이 있어 전통시장의 맥을 이어가고 있어 다행이지 싶다.

포장을 치고 그 안에 난로까지 들여 놓고 두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놓





아 월동준비를 완벽히 한 가게도 있다. 과일 전, 싸전, 말전, 어물전에 이어 이곳엔 한과와 꽃감이 있다. 사람 앉는 장소만 포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곳은 상품들도 비닐에 덮여 있다. 재네들도 추위를 타나? 이곳의 주인 강영태(56세) 씨는 시흥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흥 토박이로 용인에 있는 상인대학교까지 나온 엘리트 상인이다. 장사에는 프로 중 프로로 본인의 상품을 찾는 고객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상품을 나무판에 가지런히 담고 그 위에 비닐을 씌워 먼지가 타지 않도록 했다. 도로 양편으로 펼쳐진 장이기에 사람들의 오고감이나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한 상품 훼손 방지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포장 안 난로 위에는 어느새 꼬막이 올라가져 있다. 사발에 막걸리가 따라지고 꼬막의 입이 벌어지지를 기다리며 추위를 녹이고 있다. 장을 구경 나온 사람이나 단골손님에게도 난로에서 구운 꼬막의 별미가 전해지고 장터의 진한 정이 전해진다. 하나, 둘 꼬막의 진한 맛이 사라져 가고 있을 때 포장을 치며 아는 듯 보이는 사람이 손짓을 한다. 꼬막을 맛있게 굽던 아저씨는 이내 뛰어나가 트럭의 포장을 걷어 낸다. 그 안에는 배추가 수북이 쌓여 있다. 날이 추워 배추가 얼까봐 트럭에 실어 뽕뽕 싸매 두었는데 단골손님은 배추 아저씨만 보고도 배추를 사 간다. 단골손님의 위력은 추위도 이겨내고 포장을 걷지 않은 트럭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도일시장은 파는 이나 사는 이나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다.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오랜 세월 이렇게 함께 지내는 사이에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이웃사촌의 정을 찾을 수 있다. 옛 시절 옆집 수저의 갯수까지 알던 이웃사촌의 정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위협에도 끄떡없이 지켜낼 수 있는 도일시장의 저력이 아닐까.

드디어 본장에 도착했다

골목 양편으로 할머니들의 장이 펼쳐져 있다. 이곳이 도일장의 처음을 시작한 곳이다. 1953년 전쟁 직후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고 터를 잡고 농사를 시작하며 농사지는 농작물을 내다 팔기 시작하며 이곳에 장터가 생겨났다. 장터를 중심으로 마을이 이루어지고



골목도 생겨 점차 마을의 크기도 커졌다. 한 때는 30여개가 넘는 점포가 모이기도 했다고 한다. 집에서 농사지은 농작물, 집에서 기르는 가축, 바다에서 채취한 각종 해산물에 이르기까지 손수 마련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장을 이루고 생계를 이어가는 생활터전이 되었던 곳이다.

자주 오는 취재에 별로 할 얘기 없다고 시큰둥해하는 본장 어르신들. 이북이 고향이신분의 얘기에 할머니들의 말문이 트여 반나절을 그곳 장에서 보냈다. 월남해서 이남에서 살다 피난통에 도망 다니고, 마루 밑에 숨어 지낸 아버지 이야기와 그 가난한 시절에 유치원을 다닐 수 있었던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까지 참으로 파란만장한 어르신들의 옛 이야기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차례 했다. 삶의 굴곡을 얘기하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삶의 여정동안 우리의 쓰라린 역사를 고스란히 지닌 분들, 그 역사 속에 도일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이팔청춘에 이곳에 시집와 이젠 백발 되어서 이곳을 지키고 있다.

지금은 간간히 취재나 나오고 구경삼아 도

일시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빠르게 급변하는 세파에 이곳 장터가 어느 정도 견디어 줄지 걱정이다. 몇몇 상인들이 도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모여 논의하고 이곳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깨끗하게 잘 꾸며진 대형마트와 우리의 집 바로 옆에까지 찾아드는 SSM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아프고 시리고 따스하고 정겨운 추억을 간직한 도일장이 잘 견뎌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강냉이 트럭 위의 '뽕~' 하는 소리와 함께 이날의 장터 구경을 마쳤다. 기계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강냉이들이 영화 '웰컴투 동막골'에서 하늘에서 눈 내리듯 떨어지는 강냉이가 오버랩 된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했던 장터에서의 추억처럼 신기한 볼거리와 맛있는 장터나들이를 마치며 아련함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우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도일장, 어렵고 힘든 시절 함께 했던 이곳이 우리의 화려한 미래의 삶에도 따스하고 풋풋한 정을 나누는 장으로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하길 바란다.



문화는 무슨, 라면이라도 먹은 다음이지

글. 정석영(조각가)

지방자치 초기니까 20년 전 쯤인가. 지역의 어른, 그리고 시의원 몇 분과 식사하며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다. 내 직업 탓인지 문화 예술이 자연스레 화두로 등장했고, 나는 예측되는 도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흥다움을 지속적으로 지켜가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그러면서 지역 어른들과 의원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청도 아마 빠트리지 않았을 것이다.

오래 전 얘기임에도 '아마 빠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의 좌장이라 할 수 있었던 의원님 한 분의 반응이 꽤 깊게 내 머리에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문화는 무슨... 라면이라도 먹은 다음이지...”

밥상을 앞에 두고 벽에 기댄 채 담배 한 대를 입에 물며 말하는 그의 자세는 너무도 당당해서 거만해 보이기까지 했다. 내겐 충격이었고 잠시 동안 말조차 할 수 없었지만 무슨 말로든 쏘아붙여주고 싶어졌다.

“의원님, 개돼지랑 라면 드십니까? 사람끼리 먹는 라면이라면 같은 라면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격이 다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수준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나도 조금 심했었다. 품위 있고 좋은 말들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그저 성질대로 내뱉은 나도 고품격의 문화인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 분은 '경제의 중요성이 우선'이라

는 뜻이었거나, '라면 먹는 문화, 술 먹는 문화, 잠자리문화, 화장실문화, 가정문화, 경제문화, 정치문화, 종교문화' 등등 문화라는 단어를 어느 말에 갖다 붙여도 어색하지 않고 궁합이 잘 맞는 이유가 사람사이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존재하니 특별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이면서, 너 정도면 다 이해하고 알아들겠거니 할 수도 있었겠다 싶어서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내 부끄러움이 오히려 크고 그 의원님 생각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이라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솔직히 한편으론 많은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에 조금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떨칠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보다 문화가 부유한 나라이기를 원한다"는 김구선생 말씀이 역사와 전통만을 지키자는 것이거나, 예술의 도시나 국가가 아름다우니 굶더라도 예술가들의 세상을 세워가자고 주장하셨던 것은 아닐 것이다.

문화는 한 시대와 사회의, 그리고 가정과 개인의 정신과 격(格)을 표현하고 상징하는 것이니 문화가 부유하면 같은 것을 먹어도 행복이 더하고, 같은 것을 취하여도 흐뭇함이 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수준이 높은 문화로 궁합을 맞추면 우리의 도시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 개개인이 훨씬 풍요롭고 멋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라면을 냄비뚜껑에 후후 불어 게걸스레 먹기보다는, 예쁜 그릇에 담아 고명 없어서 우아하게 먹는 라면은 더 좋은 라면처럼 느껴지



지는 않을까.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상이 문화인 것을 그분만 몰랐던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역문화의 수준을 화두로 삼고 고민하며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일상에 존재하는 문화가 수준 높은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수준 높은 문화가 도시의 격을 높이고 시민의 품위를 향상시키며 모든 가치가 평등하게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생명도시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고급문화를 배부르고 한가한 사람들이 특정한 기회에 누리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라도 자긍심을 느끼며 자유롭게 누리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이기를 꿈꾸기 때문이다.

이것이 생명도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라면 틀린 말이 될까?

일본의 어느 유명 기업 설립자는 “문화는 투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의 존재 유무만을 놓고 평가하면 그는 틀린 말을 했다. 그러나 저급한 문화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의 주장은 당연한 것이 되고, 삶의 질이 점점 나아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약속하고 계획하는 이들에게 고급문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횡으로 종으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문화를 접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때로 수준 높은 사람과 수준 낮은 사람으로 줄을 세우는 역기능을 낳기도 하고 같은 위치에서 다양하게 소통하는 순기능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문화의 다양성이 종으로 늘어져 그 길이가 길어질수록 소통의 원활함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횡으로 퍼져있을 때라야 소통이 자유롭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가능해 진다. 그 일본 기업인의 투자 대상은 수준은 물론 횡으로도 다양하도록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문화의 시대를 구호로 삼기보다는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횡으로 다양한 문화가 수준까지 높아지고, 그것이 일상이 되는 도시를 보고 싶다.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며 수시로 감동하고, 연극을 보고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늘 높은 수준의 행복한 시민이고 싶다.

감동과 즐거움으로 행복해진 에너지로 도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높은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가 현실이 된다면 꼭 다시 듣고 싶은 말이 있다.

‘시흥사람들은 라면을 먹어도 참 우아하게 먹어.’

시흥의 인물



시흥지역 교육운동의 선각자

최경렬(崔兢烈) 1901.~1963. 5. 10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려며는 주먹이나 무기로 싸워보아야 국민만 다치고 독립을 하려며는 오직 국민을 가르치고 깨우치시여 사상적 투쟁을 하여야 독립을 할 수 있다.”

최경렬 선생의 약력

- 1901년(광무5년) 아버지 최병문 어머니 염씨 슬하 1남 출생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63번지)
- 1911년~1919년 제일고등보통학교, 부속보통학교, 제일고등보통학교 수학.
- 1919년 3.1운동에 참가하여 체포된 후 퇴학 당함. 서광잡지사 입사, 퇴사하여 군자면에 군자학원을 설립하며 교육운동 시작
- 1925년 서울 배재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편입, 1927년 졸업. 대조잡지사 근무 야간에 대성학원에서 영어 가르침
-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잡지사를 그만둠
- 1938년 안양일동학원 설립
- 1940년 논곡동 논곡학원(논곡강습소) 설립
- 1947년 논곡학원 폐쇄되자 안산초등학교 교사 근무
- 1948년 무지동 소성고등공민학교 교감 취임
-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월곡동에 군자고등공민학교 개설 이듬해 장현동 이전
- 1952년 거모동 산58번지에 4개 교실 건립
- 1954년 군자중학교로 인가, 학교재산 회사
- 1963년 5월 10일 숙환으로 별세
- 1989년 4월 27일 일제하 시흥지역 참 교육 실천 교육운동 선각자로 인정. '고 최경렬 선생 공적비 건립위원회'가 군자중학교에 공적비 건립
- 2011년 시흥문화원과 최경렬 선생 선양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시흥시, 시흥시의회 후원으로 시흥의 인물 선양사업 추진



군자고등공민학교 1회 졸업
(1953년 3월 27일)

주최·주관 : 최경렬선생 선양추진위원회, 시흥문화원 / 후원 : 시흥시, 시흥시의회

시흥문화원

문화강좌안내

2013년 시흥시 문화강좌의 참여를 통해
행복한 문화생활을 즐기세요.

강좌명	강사명	요일, 시간	수강료	대상
노래교실	이희제	월 10:00 ~ 11:30	3개월 30,000원	성인
시조창	박일엽	월 10:00 ~ 11:00	3개월 30,000원	성인
시흥향토민요와 서도소리		월 11:00 ~ 12:30	3개월 60,000원	성인
서예	전남훈	화 10:00 ~ 12:00	3개월 60,000원	성인
영어	이부자	화,금 10:30~12:00	3개월 90,000원	성인
월미풍물(중급)	김원민	화 19:00 ~ 20:30	3개월 30,000원	성인
한국무용(작품반)	전경아	수 10:00 ~ 11:30	3개월 60,000원	성인
한국무용(초급반)		수 12:30 ~ 14:00	3개월 60,000원	성인
기타교실	금상욱	수 10:00 ~ 12:00	12주 60,000원	성인
		수 18:00 ~ 20:00		성인
		토 13:00 ~ 14:00		어린이, 청소년
		토 14:00 ~ 15:00		어린이, 청소년
색소폰	남궁기문	수 19:00 ~ 20:30	12주 60,000원	성인
드럼(초급)	김미라	수 15:00 ~ 16:00	12주 60,000원	성인, 청소년
드럼(초급)		수 16:00 ~ 17:00		성인, 청소년
드럼(중급)		수 17:00 ~ 18:00		성인, 청소년
줄마밴드	최진영	목 10:30 ~ 12:00	12주 120,000원	성인
경기민요	문운자	목 13:00 ~ 14:30	3개월 45,000원	성인
동화발레	김미란	목 16:10 ~ 17:00	12주 60,000원	4세 ~ 7세
한지공예	신은경	금 10:00 ~ 12:00	3개월 30,000원	성인
민화	김이랑	금 10:00 ~ 12:30	3개월 60,000원	성인
종이접기	윤주현	토 13:00 ~ 14:00	12주 45,000원	어린이

- 접수기간 및 방법 : 연중 선착순마감, 방문접수
- 수강료 : 카드수납가능(각 과목 교재비 및 재료비 별도)
- 강의일정 및 시간은 문화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317-0827 / 0821

2013년도 회원가입 안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시흥의 문화 지킴이와
알림이로서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모십니다.

우리 문화와 시흥의 역사를 사랑하고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시흥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 회원이 되시려면

자 격 : 시흥시에 거주하시거나 시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

일반회원 : 시흥시 거주자

특별회원 : 타지역 거주자

회 비 : 회원(일반, 특별) 월 3,000원

가입방법 : CMS 회원신청서 작성(매월 25일 자동이체)

※ 일시납 가능 (30,000원)

☞ 회원이 되시면

- 시흥문화원 소식지 『시흥문화』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을 무료로 우송해 드리고,
- 시흥문화원에서 실시하는 공연, 전시, 행사, 교육 등을 안내·초청합니다.



www.shculture.or.kr

※ 문의 : ☎ 031) 317-0821, 317-0827 / 429-252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75-1



시흥문화원

시흥시 하중동 875-1 조은프라자 4층
시흥문화원 사무국 TEL. 031-317-0827